

희망의 한 획을 그은 1년,
280만 인천시민의 심장이 함께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삼성, 송도바이오 단지에 2조 투자유치, 경제수도 인천 '3대 핵심사업' 시행,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착공 등 지난 1년의 성과에 멈추지 않고
1등을 향해 더욱 도약하겠습니다.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1 / 7

Summer Story 인천바다의 숨은 보물
잊혀진 섬, 말도

민선5기 1년 인천거주 외국인과 대담
Old But New 송림동 현대극장 주변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1년 7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대변인 윤판석
편집장	유동현(뉴미디어팀장) twitter.com/happyyou
취 재	편집위원 이윤남 twitter.com/yo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사 진	김보섭 · 홍승훈 · 김성재(자유사자간) 심영보 · 하정원(시 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코인뱅크 T. 032-831-2336
인 쇄	브레인포스 T. 032-423-1988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외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Cover Story

팔미도 동대
대한민국의 바닷길을 인도하는 팔미도 동대입니다.
1903년 6월 1일 정동진,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로, 해발 고도 71m 팔미도 꼭대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인신상륙 작전도 이곳을 탈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도록 군사보호구역이었지만, 2009년 '인전방문의 해'부터 개방되었습니다. 동서남북의 기준점, 팔미도! 인신의 또 다른 열거입니다.



04 **Communication** 소통과 화합

06 **Summer Story** 인천바다의 숨은 보물
잊혀진 섬, 말도

20 **민선5기 1년** 인천거주 외국인과 대담
희망의 바람이 분다

32 **Old But New** 송림동 현대극장 주변

38 **Culture News** 문화뉴스, 이달의 공연전시

40 **Civic News** 시정뉴스

43 **Council News** 의정뉴스

46 **별난 물건, 별난 역사** 월미도 조탕

48 **책 읽는 인천** 도서관을 서재로 쓰세요

50 **건강백세** 더운 여름, 음식 조심하세요

51 **외국인 칼럼** 사통팔달 대중교통 가장 인상적

52 **Infobox** 생활정보

56 **Spot the Difference** 다른 그림 찾기

57 **Reader's Photo** 김치찰칫

58 **모닝커피 한잔** 이영준 한국산업은행 인천지역 본부장

06 Summer Story | 인천바다의 숨은 보물
바다보다 빛나는 보물찾기

바다, 파도, 모래사장... 이것이 섬의 다는 아니다. 섬에는 초록으로 물결치는 숲이 있고 신기루처럼 떠오르는 섬 안의 섬도 있다. 인천바다 곳곳에 비밀스럽게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아 떠난다.

20 **민선5기 1년 | 인천 거주 외국인과 대담**
학교, 거리 조성…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인천에 사는 외국인들은 인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인천에 살면서 느끼는 점, 생활 속에서 불편한 사항은 무엇일까. 인천시에 바라는 점이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일까.

32 Old But New | 송림동 현대극장 일대
시간이 멈춰선 흑백사진, 그 속에 내가 있다

그 산은 사람을 품었다. 1900년대 초 일본군이 중구 전동 부근에 주둔하면서 쫓겨 온 사람들이 산등성이에 움막을 지었다. 이어 6·25 동란이 터지자 황해도 등 이북 사람들이 산비탈에 솥단지 를 걸었다.

소통과 화합 communication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인천시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enews.incheon.go.kr)
블로그(blog.naver.com/flyic)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www.facebook.com/visionincheon)을 통해 인천과 만나세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라면, 쓰든 달든 언제나 환영합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서울에서 인천시민으로

서울에서 50여 년을 살다가 작년에 송도국제도시로 이사왔습니다. 서울에서 정년퇴직 후에 일을 계속 해왔기에 인천에서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민센터에서 노인일자리 공고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신청을 하였지요. 그 후 연수노인복지관에서 상담을 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실버유아보조 강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에 배치돼 아이들에게 동요와 동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년에도 일자리를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아직 조금은 낯설지만 인천에서의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_ 김용순 연수구 송도동

앞으로도 시민과 가까이 소통해주세요

얼마 전에 우연히 시교육청을 지나가다가 교육의원이 민원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인천시민이 뽑은 교육의원, 시의원이 책상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민원현장에서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구나' 하고요. 앞으로도 시민의 안타까운 사연이나 잘 모르는 행정사안에 대해 들어 주시고 안내해 주면 좋겠습니다.

_ 김민영 남동구 구월동

책을 가까이 할래요

<굿모닝인천>의 모든 이야기가 유익했지만 그 가운데 '책 읽는 인천'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시민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 카페를 설치하는 등 독서운동을 펼치는 인천시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멀리했었는데 앞으로 책 읽는 습관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_ 장지훈 의정부시 신곡동

옛 동네에 대한 추억이 새록새록

<굿모닝인천> Old but New 기사를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에 대해 몰랐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어 유익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자녀들과도 유쾌한 대화거리가 되어 좋습니다. 그리고 애독자이자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부로서 제안을 한다면, '싱싱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인천의 재래시장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어떨까' 합니다.

_ 한순희 남동구 구월1동

자랑스러운 영흥주민입니다

<굿모닝인천> 애독자이자, 인천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영흥도에서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어쩌다 인천 도심에 갔다가 영흥으로 오다보면 시화방조제에서 보는 송도국제도시 야경이 마치 홍콩의 야경을 보는 것처럼 멋지게 보인답니다. 송도국제도시가 홍콩보다 더 멋진 도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편집자께 건의 드립니다. 인천상륙작전의 전초기지인 영흥도를 취재해 주세요. 6·25 전쟁 때 주민들과 첩보부대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리에 마치기까지 활동했던 주무대가 바로 영흥도입니다.

_ 육종율 웅진군 영흥면

문화관광의 알찬 정보가 가득

<굿모닝인천>을 알게 된 후 몇 년째 빠짐없이 애독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내용이 가득해 인천 토박이인 저도 계속해서 인천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애독자로서 건의하자면, 다른 지역의 문화, 관광정보도 다뤄주시면 어떨까요? 다른 지자체와 정보를 교환해서 말이죠. 다른 시에 인천을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인천시민을 위한 유익하고 알찬 <굿모닝인천>을 기대합니다.

_ 이기훈 연수구 동춘3동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인천시 새터민에 대한 정책이 궁금합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행정기관 내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ulloger 시장님 광로3-24도로를 아시나요? 2008년 개통했어야 할 도로가 검단신도시 2지구에 포함돼 2지구착공시 최우선 개통시켜 주기로 인천시에서 약속했지만, 검단신도시 개발 연기로 도로 개통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광로3-24호선(금곡동~김포시계간 도로)는 검단신도시 2지구에 포함되어 사업 착수 시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업시행자(나, 도개공)의 경영상황이 어려워 2지구 사업의 순연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신도시 분양성 제고 및 경영개선 등을 통해 2지구 착수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ulloger 시장님 웅진군 소야도 학생들의 목숨 건 등교길을 살펴 주세요. 2억원이면 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야리 자치선에 대해 군비(소규모 숙원사업)로 3천500만원을 긴급 책정, 현재 선체 및 기관수리 등을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기간인 7월 초까지는 덕적행정선으로 대체 운항할 예정입니다. 향후 소야리 자치선에 대한 정원 및 안전성을 다시 고려해 신규 건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정혜진(당시 만 6세, 여)
발생일자 1989년 4월 22일(토)
발생장소 동구 박문사거리
신체특징 오른 쪽에만 쌍꺼풀이 있음, 웃으면 보조개가 약간 들어감
보건복지부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바다보다 빛나는 보물찾기

바다, 파도, 모래사장... 이것이 섬의 다는 아니다. 섬에는 초록으로 물결치는 숲이 있고 신기루처럼 떠오르는 섬 안의 섬도 있다. 억겁의 세월이 빚은 자연의 걸작과 이와 어우러진 문명의 작품도 있다. 인천바다 곳곳에 비밀스럽게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아 떠난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GOOD MORNING INCHON 91

7 JULY 2011



대이작도 '풀등'



세어도

곁에 있어도 그 섬이 그림다 세어도

‘서쪽에서 멀리 머물다’는 뜻을 지닌 세루섬으로 불리던 세어도, 섬은 지금도 서쪽 바다 한쪽에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머물러 있다. 동구 만석부두에서 뱃길로 40여 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지만 육지와 섬을 잇는 건 작은 행정선 한 척뿐이다. 둘레가 1천 길음에도 못 미치는 이 섬에는 2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인천에서 전깃불이 가장 늦게 들어 온 오지. 아이들은 어른이 된 후 물으로 떠났고 섬에서 유일했던 초등학교도 사라졌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만큼 자연은 티 없이 맑고 순수하다. 특히 세어도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세상이 잠기울면 영종대교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하나들 피어올라 찬란히 빛난다. 그러면 낙도 아닌 낙도로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그 섬이, 마음속으로 가까이 가까이 파고든다.

가는 길 | 만석부두에서 행정선 서원호가 하루에 한 번 운행한다. 섬까지 40분 남짓 걸린다.

문의 | 서구청 560-4161

바다에 투영된 빛과 그림자 팔미도 등대

두 개의 섬이 마치 여덟 팔 자처럼 양쪽으로 뻗어 내린 꼬리와 같다하여 팔미도라 불리는 섬, 그 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있다. 밤길 떠나는 배의 바닷길을 이끌어 주며 어두운 바다를 홀로 밝혀 온 등대가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106년간 홀로 바다를 비추다 2009년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한 것이다. 1903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고, 6·25때는 인천 상륙작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팔미도 등대. 등대 불빛 따라 푸르게 넘실거리는 바다를, 빛과 그늘을 함께 해 온 우리의 역사를 비추어 본다.

가는 길 |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이 매일 두 차례 운항한다.

문의 | 현대유람선 882-5555



팔미도 등대

바다 위 붉게 핀 꽃밭 영종도 함초

영종·용유도에는 마시안해변, 용유해변, 선녀바위해변, 을왕리해변, 왕산해변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며 드리워져 있다. 그 아름다움을 쫓아 가는 길, 푸르게 넘실거리는 물결 위 크고 작은 섬들이 보석처럼 점점이 뿌려져 있다. 그리고 저 멀리 배가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수면 위를 미끄러진다. 시원하게 뚫린 영종대교를 지나자 함초가 붉게 타오른 갯벌이 아득히 펼쳐진다. 영화 ‘취화선’에서 장승업이 첫사랑을 잃은 아픔을 안고 휘적휘적 걸던 바로 그 곳이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영상들이 지워지지 않을 그림으로 가슴에 곱게 새겨진다.

가는 길 | 공항철도를 타거나, 차를 타고 공항고속도로를 지나 영종대교로 간다.

문의 | 영종출장소 760-7717, 공항철도 745-7788

옛 사람이 예찬하던 용유팔경

바다에서 노니는 용의 모습을 닮아 용유도라했던가. 옛 사람들은 이 섬의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하며 ‘용유팔경’이라 했다. 바로 명사십리 해당화, 왕산낙조(왕산해변의 노을), 비포장군바위, 선녀기암(선녀바위), 오성단풍(오성산의 단풍), 잠진어화(덕교동 부근 고깃배의 야경), 무의조무(무의도 호룡곡산과 국사봉에 걸린 아침안개), 팔미귀범(팔미도 뒤로 돌아오는 배의 모습)이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이 가운데 오성단풍과 비포장군바위는 사라지고 없다. 안타깝지만 마음으로나마 그 아름다움을 그려 본다.

가는 길 | 차를 타고 인천대교 혹은 영종대교를 건너거나, 공항철도를 타고 간다.

문의 | 용유출장소 760-6800, 공항철도 745-7788

용유팔경 중 하나인 ‘선녀바위’



마음까지 선선하게 덮는 십리포 소사나무숲

지난 2001년 선재도와 영흥도 사이에 영흥대교가 놓였다. 다리가 바다를 가로지르면서 섬은 육지가 되고 섬사람은 육지인이 되었다. 사람의 발길이 잦아지고 섬은 때를 탔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자연을 어찌 하지는 못했다. 특히 십리포해변은 영흥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해변이다. 활처럼 흰 백사장을 따라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소사나무 군락지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100여 년 세월을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나무 400여 그루가 그들 퍼포먼스를 하듯 서 있다. ‘못난이 나무’라고도 불리는 소사나무는 그 생김새가 독특해 보는 것 만으로도 즐겁다. 또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짹짹하게 우거져 있어 마음까지 선선하게 덮어 준다.

가는 길 | 시화방조제를 거쳐 대부도를 지나 영흥대교를 건넌다.

문의 | 영흥면 주민자치센터 899-3810



꿈결 같은 바다 위 산행 무의도 환상의 길

‘산이 좋다 바다가 좋다’ 논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품에 넣어 지닌 섬이 있다. 용유도 잠진도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4분 남짓 바다를 건너면 무의도에 이른다. 무의도 여행의 묘미는 섬 산행이다.

무의도에는 ‘서해의 알프스’라 불리는 호룡곡산과 국사봉이 여인의 가슴처럼 봉긋 솟아있다. 호룡곡산에는 ‘환상의 길’로 이름지어진 등산로가 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아찔한 절벽에 다다른다. 산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파도소리가 선명하게 귓가를 두드리고 눈앞에선 ‘환상’이 펼쳐진다. 기암절벽과 부서지는 파도 그리고 푸른 물결... 마치 꿈인 듯 정신이 아득해 진다.

가는 길 | 잠진도선착장에서 무의도행 배가 30분 간격으로 운항한다.

문의 | 용유출장소 무의지소 760-6880, 무의해운 751-3354, 5



영화 같은 삶이 여기에 시도 드라마세트장

신도, 시도, 모도는 북도면에 나란히 떠 있는 형제 같은 섬이다. 세 개의 섬이 손을 잡듯 다리로 이어져 있어 섬과 섬을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다. 삼목선착장에서 10분 정도 뱃길에 오르면 신도, 여기부터 북도면 여행이 시작된다. 신도와 시도는 특히 드라마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다. 시도 수기해수욕장에는 드라마 ‘풀하우스’ 세트장이 그림처럼 안겨 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가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수기해변에서 산 쪽으로 15분 정도 걸어가면 ‘슬픈연가’ 세트장이 나온다. 언덕 위 하얀 집의 문을 열고 브라운관 속으로 걸어들어간다. 통유리로 된 집안에서 바라보는 코발트빛 바다는 시시각각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는 길 |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0분 정도 간다.

문의 | 세종해운 884-4155, 북도면 주민자치센터 899-3410



시도~모도간 연도교



몽환이 흐르는 섬 모도 조각공원

시도에서 두 번째 연륙교를 넘으면 모도다. 모도는 아담한 섬이지만, 다른 여행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매력이 있다. 바로 조각가 이일호가 섬세한 감성으로 빚은 배미꾸미 조각공원 덕이다. 휴머니즘과 에로티즘을 넘나드는 그의 작품이 고즈넉한 배미꾸미 해변과 어우러져 묘묘한 분위기를 퍼트린다. 만조 때 바람이 심하면 조각품 밑까지 파도가 치기도 한다. 또 공원 주변에 작가의 작업장을 개조한 카페가 있어 감미로운 차 한잔 마시며 일상의 고단함을 씻을 수 있다. 이 공원은 김기덕 감독의 영화 ‘시간’을 촬영한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가는 길 |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신도로 간다. 신도에서 마을버스를 타면 공원까지 15분 정도 걸린다.

문의 | 세종해운 884-4155, 북도면 주민자치센터 899-3410

시도 '풀하우스 세트장'



모도 '조각공원'



부끄럼 많은 모래섬 대이작도 풀등

자월도 가까이서 꿈인양 부유하는 작은 섬 이작도. 이 섬에는 풀치 혹은 풀등이라 불리는 모래섬이 있다. 이 섬은 밀물이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가 썰물 때서야 제 속살을 드러낸다. 섬 전체에 맑고 고운 모래가 완만히 깔려 있어 온 가족이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다. 또 조개를 캐고 계와 씨름하는 재미에 빠지다 보면, 어느덧 육지에서의 일상이 까마득히 잊혀진다. 바다가 섬을 놓아주는 시간은 하루에 단 6시간. 사람의 발길을 쉬 허락지 않기에 섬에서의 휴식은 더 깊고 달콤하다.

가는 길 | 연안부두에서 쾌속선을 타고 대이작도로 간 후 섬으로 간다.

문의 | 덕적면 주민자치센터 899-3710, 우리고속훼리 887-2891~5, 대부해운 886-7813, 4

대이작도 '풀등'



바다를 걸어 섬으로 소야도 바닷길

하루 두 번, 세상을 향해 품을 활짝 여는 섬이 있다. 바닷속을 유영하듯 육지에서 바다 건너 섬으로 간다. 덕적도 가까이에 있는 소야도는 작지만 아름다운 섬이다. 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신비의 섬이기도 하다. 소야도와 간테섬 사이 500미터, 간테섬과 물푸레섬 사이 800미터, 소야도와 뒷목섬 사이 200미터 구간에 바다갈라짐 현상이 나타난다. 소야도 일대의 바닷길 현상은 뚜렷하고 또 여러 개의 섬을 바닷길로 연결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한다. 섬으로 가는 길, 살아 숨쉬는 바다생명과 짙은 바다 향이 이 곳이 바닷속이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한다.

가는 길 | 연안부두에서 1시간 정도 쾌속선을 타고 덕적도로 간다. 소야도는 덕적도 진리도우선착장에서 배로 5분 거리에 있다.

문의 | 덕적면 주민자치센터 899-3710, 우리고속훼리 887-2891~5

초록 섬에 깔린 금빛 웅단 덕적도 소나무숲

물이 깊디깊어 '큰물'이라 불리는 덕적도. 섬 전체를 감싸 안는 소나무 숲. 숲 아래 펼쳐진 바다도 깊디깊어 옥빛이다. 금방이라도 온 세상에 푸른 물을 퍼트릴 것만 같다.

그 섬에 그림처럼 내려앉은 서포리 해변은 서해 최고의 바닷가로 손꼽힌다. 소나무 숲이 백여 년 세월을 안고 드리워져 있고 곱디고운 모래사장이 2킬로미터에 걸쳐 아득히 펼쳐져 있다. 간조 시에도 물이 거의 빠지지 않고 갯벌이 드러나지 않아 산림욕을 하면서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가는 길 |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을 타면 1시간 정도 후에 덕적도에 도착한다.

문의 | 덕적면 주민자치센터 899-3710, 우리고속훼리 887-28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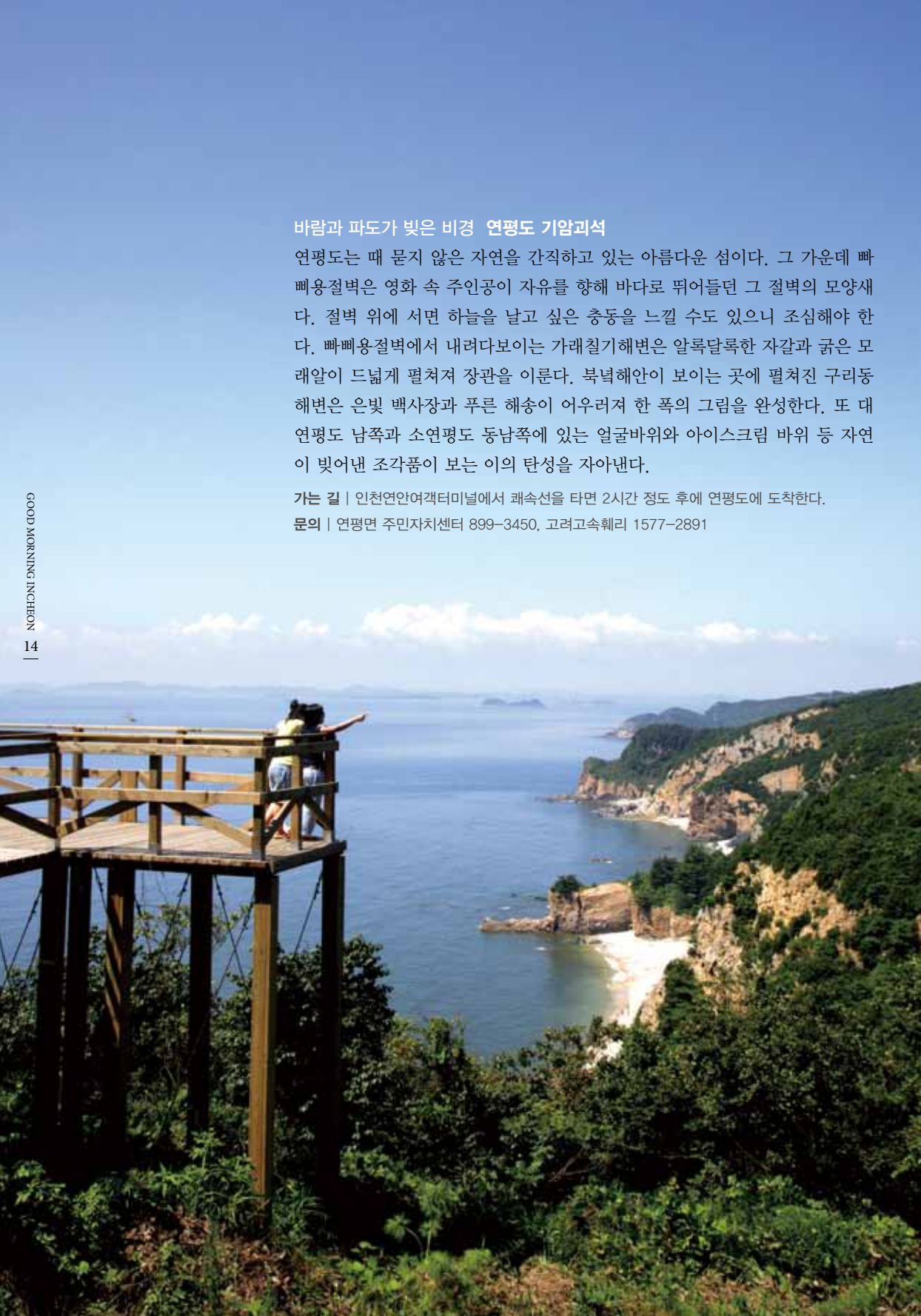


바람과 파도가 빛은 비경 연평도 기암괴석

연평도는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 그 가운데 빠삐용절벽은 영화 속 주인공이 자유를 향해 바다로 뛰어들던 그 절벽의 모양새다. 절벽 위에 서면 하늘을 날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빠삐용절벽에서 내려다보이는 가래칠기해변은 알록달록한 자갈과 굵은 모래알이 드넓게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북녘해안이 보이는 곳에 펼쳐진 구리동 해변은 은빛 백사장과 푸른 해송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한다. 또 대연평도 남쪽과 소연평도 동남쪽에 있는 얼굴바위와 아이스크림 바위 등 자연이 빚어낸 조각품이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가는 길 |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을 타면 2시간 정도 후에 연평도에 도착한다.

문의 | 연평면 주민자치센터 899-3450, 고려고속훼리 1577-2891



서해바다 마스크트 백령도 물범

점박이물범은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331호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다. 백령도 앞바다가 그들의 휴식처로 200~300마리가 살고 있다. 물범은 겨울이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나타난다. 잠수를 마치고 수면에 오른 물범은 휘파람소리를 내며 커다란 눈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또 통통한 몸집에 지느러미로 바뀐 다리와 머리를 하늘로 뻗어 몸을 활처럼 휘며 해바라기를 하곤 한다.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으며 수면을 미끄러지듯 유영하는 모습은 백령도의 새로운 풍경이 되고 있다.

가는 길 |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을 타면 4시간 정도 후에 백령도에 도착한다.

문의 | 백령면 주민자치센터 899-3510, 우리고속훼리 887-2891~5, 청해진해운 889-7800

바람이 빛은 모래언덕 대청도 옥중동사구

인천에서 배를 타고 네 시간, 검푸른 바다 한가운데 길게 누운 대청도가 모습을 드러낸다. 옥중동해변 옆에는 사하라 사막을 옮겨 놓은 듯한 모래 언덕, 옥중동사구가 있다. 중국에서 날아온 모래가 긴 세월 물결처럼 이동하면서 66만㎡에 이르는 거대한 언덕을 이룬 것이다. 이 신비로운 모래언덕은 바람결 따라 이리 쌓이고 저리 쌓이면서 하루하루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낸다. 섬 남쪽에는 모래여울이라는 뜻의 사탄동에는 사탄동사구가 있다. 그 이름처럼 모래가 손으로 잡으면 모두 빠져나갈 만큼 곱디곱다.

가는 길 |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로 가는 쾌속선을 타면 대청도를 거쳐간다.

문의 | 대청면 주민자치센터 899-3610, 우리고속훼리 887-2891~5, 청해진해운 889-7800

햇살, 긴 여운으로 남다 강화도 노을

강화도를 여행 중이라면 해질 녘에는 장화리 해안에 꼭 닿아야 한다. 장화리 노을은 유난히 붉고 눈부시기로 유명하다. 뜨겁게 세상을 달구던 태양이 부서져 하늘도 바다도 사람도 모두 붉게 물들면 모든 것이 꿈인 듯 정신이 아득해 진다. 강화 곁에 있는 석모도 낙조도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외포리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0분 정도 가면 석모도에 이른다. 바다가 몸을 식히려 할 즈음 젖어드는 낙조는 마음에 기나긴 여운으로 남는다.

가는 길 | 강화도에서 석모도에 가려면 외포리선착장에서 카페리를 탄다.

문의 | 강화군청 930-3114, 삼산면 주민자치센터 930-4510

백령도 '물범'



간극^{間隙}의 바다 위 희망으로 핀 섬



강화바다 끝. 평화롭던 바다에 북방한계선이 그어지고 좁히기 힘든 간극이 생겨났다. 섬과 세상을 잇는 건 드문드문 간헐적으로 운행하는 행정선뿐. 하지만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그보다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기에, 섬은 외롭지 않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그 섬은 세상을 잊지 않았다

이른 아침 외포리선착장, 주문도와 볼음도를 거쳐 강화바다 끝점으로 가는 배가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월요일이라 배 안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육지에서 주말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선생님과 학생들, 집으로 향하는 주민들로 활기가 넘친다. 갑판 위에는 생필품이 가득 담겨 배가 불룩 나온 종이 박스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 ‘한동안 먹고 마시고 쓸 걱정은 없겠네’ 넉넉히 채워진 섬사람의 마음을 아는 듯 바다물결 따라 넘실넘실 춤을 춘다.

“정이 들었어. 이젠 한식구나 다름없어. 읍에서 맛있는 것이라도 사면 잊지 않고 갖다 주고, 필요해서 산 귀한 물건도 아낌없이 나눠 주곤 해.” 11년째 말도와 세상을 잇고 있는 조명호 선장은 섬사람들이 가족 같다고 했다. 인천에서 북서쪽으로 45km 황해도 연백군 해성반도에 서 남쪽으로 7km, 강화 바다의 끝자락에 외로이 핀 말도. 섬은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 건너 세상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있었다.



산 정상에 서면 서쪽으로 북녘 땅이 보인다. 보안상 이유로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다. 보이는 것은 마을 전경



말도 해변에는 '남조선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북한 귀순자를 위해 '대한민국'이 아닌 '남조선'으로 표기했다.



말도 사람들이 절경이라 자랑하는 쌍바위(갈래바위)
주변에는 게와 소리가 지천으로 널렸다



바다 위 비무장지대를 지키는 해병대원들. 섬 어르신들에게엔 아들과 같다.

1965년 어민 남북사건 이후 국가가 지은 집. 서로를 감시하도록 두 채의 집을 연결해 놓았다.



말도 토박이 김근동 할아버지
자식들은 물에 있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말도를 지킬 것이다.



말도 등대교회. 아이들이 떠나고 섬에서 유일했던
초등학교는 교회가 됐다.

섬의 운명을 바꾼 북방한계선

말도는 거리상으론 그리 멀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머나 먼 섬이다.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 보고 있어 민간인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다. 여객선도 없고 그 흔한 구멍가게도 없다. 오로지 일주일 에 세 번 운항하는 행정선 만이 육지와 섬을 간헐적으로 잇고 있다. 섬에는 주민 열세 가구 스무 명 남 짓과 이곳을 지키는 해병대 스무 명 정도가 오롯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섬도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 였다. 6·25 당시 북한 연백평야의 부자들이 전마선을 타고 와 터를 이루면서 흥등가가 있을 정도로 흥 청거렸고, 바다에는 참조기가 일대 성시를 이뤘다. 하지만 1953년 북방한계선이 그어지고 어선의 출입 을 막으면서 섬의 불빛은 점차 사그라졌다. 지금 철책선도 지뢰밭도 없는 바다 위 비무장지대에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만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한때 90여 가구가 모여 살았어. 하지만 젊은이들이 하나둘 섬을 떠나고 나중에는 위험하다며 제 부모 들까지 육지로 모셔갔어. 하지만 나는 섬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 내 고향은 내가 지켜야하니까.” 말도 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고 있는 김근동(73) 할아버지는 외딴 곳일지라도 고향이 좋다고 했다. 하지만 육 지 이방인을 받기며 어깨를 토닥이는 그의 손길에서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짙게 묻어났다.

그래도 말도 만한 곳이 없어

바다 황금어장에 북방한계선이 그어지고 주민들의 마음에는 생채기가 깊게 패었다. 1965년에는 ‘먹고 살기 위해’ 북한 함박도 부근에서 고기를 잡던 주민들이 북한군에 발각됐다. 110여 명은 죽을 힘을 다해 섬으로 왔지만 나머지 120여 명은 붙잡혀 갇은 고초 끝에 간신히 풀려났다. 섬에 와서도 우리 공안당국 으로부터 혹독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어디에도 말도 만한 곳이 없다. 섬에는 맑고 깨끗한 자연과 거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김을구(97) 할아버지는 부평구 청천동에 살다가 7년 전 부인과 함께 말도에 터를 잡았다. 도시를 그 리워하는 아내의 낯두리가 마음 쓰이고 문득 육지에 사는 아들딸 생각이 나지만, 그래도 말도가 좋다. “이곳에서는 욕심낼 것이 없어. 산에서 약초와 나물 캐고 바다에서 소라와 게 잡고, 먹을 게 지천으로 널렸어. 그 뿐인 줄 알아. 여기 사람들은 모두 일 가구 이 주택자야. 모두 부자라고. 허허” 서슬 퍼런 시 절 국가는 이웃끼리 서로를 감시하도록 한 지붕에 두 채의 집을 지어 살게 했다. 이제는 사람 수가 줄어 한 가구에서 두 채를 다 쓴다. 구김 없는 말도사람들은 그 아픈 기억조차 행복이라 말하며 웃음지었다. 해병대초소가 있는 산봉우리,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본다. 서쪽으로 북녘 땅 함박도가 한 눈에 들어온다. 그 너머로 김일성주체탑과 북한군 초소도 보인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두 두 동강이 난 아픈 현실이 살갗에 닿듯 끼쳐 온다. 저 멀리 바다가 욕심도 이념도 다 부질없다는 듯 햇살 아래 푸 르게 푸르게 넘실거리고 있다.

가는 길 | 강화 외포리선착장에서 월요일 오전 8시에 말도로 가는 행정선이 운항한다. 또 주문도에서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 말도로 가는 행전선이 운항한다. 외포리선착장에서 주문도와 볼음도를 거쳐 말도까지 뱃길로 1시간 40여 분 걸린다. 단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니 서도면에 문의해 허락을 받고 방문해야 한다.

문의 | 서도면 주민자치센터 930-4520



마크 핼리윌
(영국, 인천시 외국인 공무원)

“
자전거 쉽게 탈수 있는
정책마련을
”



까뜨린리
(필리핀, 결혼이주민)

“
아이들 교육문제로
고민 많아
”



교육비 많이들고, 애로사항 많아 고민

마크 오늘 대담을 진행할 마크입니다. 우선 민선5기 1주년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참석자들은 인천이 다방면에서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피라씨 시작해 주세요.

피라 저는 요르단에서 왔습니다. 2003년 한국여자와 결혼해서 7살된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딸이 영어와 한국어는 잘하지만 아랍어는 못합니다. 교육비가 적정한 국제학교가 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교육문제 때문에 자녀와 아내는 본국으로 보내고 혼자서 이곳에 남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환경이 잘 조성되면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지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마음놓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해 작년에 채드워 인터내셔널이 개교했고, 9월엔 청라에 달튼외국인학교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인천에 있는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맡길 교육기관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수업료도 점차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핀란드는 교육시스템이 좋은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요. 우리나라의 많은 교육자들이 핀란드의 시스템을 모방하거나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레오 핀란드의 좋은 교육적 요소는 좋은 선생님과 국제적인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등학생들을 위한 초등교육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까뜨린리 한국인과 결혼해서 경기도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 왔는데 인천은 도시가 커서 기회가 많아 보입니다. 저도 외국인이다 보니 자녀교육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국어는 웬만큼 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지만 아이들 교육은 쉽지 않아 애태우고 있습니다.

학교, 거리 조성... 외국인이 살기좋은 도시로

인천에 사는 외국인들은 인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인천에 살면서 느끼는 점, 생활 속에서 불편한 사항은 무엇일까. 인천시에 바라는 점이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일까.

민선 5기 1년을 맞아 송영길 시장은 인천에 사는 외국인들과 만나 인천의 정주여건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타운미팅(Town Meeting)'을 가졌다. 외국인들은 인천에 살면서 교육문제, 교통,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에 관심이 많았고, 외국인이 살기 편하고, 살고 싶은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했다. 또 인천이 국제도시로 발전하는 데 자신들도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송 시장도 그들과의 대담을 통해 글로벌 문화, 다문화가 어우러지는 인천을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담은 6월 15일 송도국제도시 내의 레스토랑 What's David's에서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시장과 외국인과의 대담은 통역없이 영어로 진행됐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번역(정리) 강민정 국제협력관실



레오 아키라
(핀란드, 파이박스 대표)

“
핀란드,
초등교육 프로그램 최고
”



채드
(미국, 인천대 교수)

“
송도, 연수구
교통정책 심해
”

외국인에 도움되는 외국인정보센터 신설을

피라 인천시를 위해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울에 이태원과 같이 인천에도 외국인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정말 필요한 정보를 외국인 거리에서 얻어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신포동 같은 곳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드 네 정말 그래요. 송도국제도시가 생기기 전 인천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동인천이었지요. 동인천은 예전부터 외국인이 많은 곳입니다.

레오 역사적인 배경을 봐도 이해가 갑니다. 인천의 개항기 시절 외국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었고, 독일인들이 살았습니다.

피라 문화의 다양성이 숨어 있는 곳이군요. 그곳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와서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레오 저도 외국인 거리 조성을 찬성합니다.

임란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인 거리가 조성되어 박물관, 식당이 들어서고 외국인정보센터도 생겼으면 합니다.

시장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찾아오는 아시아의 관광객과 선수단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보여줄 것인가를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아시아광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쌀국수, 일본 라멘처럼 아시아음식과 누들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생각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가 다가오니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한국사회 정착 돕는 정책 필요

채드 인천에 살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97년에 한국에 왔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의 재정문제 등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취임해 할 일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교통입니다. 특히 연수구는 교통정체가 심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크 저는 자전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조성해 놓았는데 자전거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동차 사용자만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이 자전거를 쉽게 이용하고 많이 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도시 곳곳에 자전거 정거장도 있어야 하고 전용라인도 있었으면 합니다. 영어표지판이나 안내문의 영어표기가 일정하지 않아 혼돈을 초래합니다. 처음 온 외국인들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여러분은 인하대학교와 인천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마크 학생들이 1, 2년 사이 정말 많은 변했습니다.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거의 원어민 수준이에요.



피라 알 쿠파이
(요르단, 아랍식당 운영)

“
신포동에 외국인 거리
조성됐으면
”



임란 무하마드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

“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비자 연장 했으면...
”

한국어 교육기관 많이 생겼으면

임란 한국에 살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일해야 하기에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공장이 서구에 있어 한국어를 배우러 일주일에 세 번 남동구로 갑니다. 가까운 곳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합니다. 한국에 온 사람들 대부분이 돈벌러 온 사람들이 많기에 비자를 연장해 주었으면 합니다.

시장 비자문제는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 지방정부는 도울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을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최대한 여러 장벽을 없애고 개방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비자면제도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닉 저는 인천에 살면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한국과 유럽간의 FTA에 무척 관심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유럽의 맛있는 맥주, 치즈, 와인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한·유 FTA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개인적으로 적극 지지합니다. 한·유 FTA 기회를 잘 이용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FTA가 성사되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2014 AG 개막식에 인천만의 색채 살리길

피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해 다들 아시죠, 개막식날 전 세계인에게 기억될 만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한번 찾았으면 합니다.

닉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 행사는 한국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인천만의 스타일로 세계인을 사로잡을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채드 인상적인 개막식도 중요하지만 한국적 소재와 인천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고 정서적으로도 잘 표현해야 세계인이 감동할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 좋은 지적입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정된 예산에 맞춰 인상적인 개막식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닉 2014년이 되면 인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마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이 있는 구월동이 될 것입니다. 로테오 광장도 빠질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곳은 거리정비가 좀 돼야 합니다. 광고전단지가 여기저기 뿌려지고 쓰레기도 많습니다. 2014년에 중요한 지역이니 환경미화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환경문제는 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 인천, 어떻게 외국자매도시와 교류하나?

피라 시장님은 영어를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시장 2000년 국회의원 당시 몽골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한국대표들은 영어를 잘 못했는데 북한대표단은 영어를 매우 유창하게 하더군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영어공부를 결심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보면서 매일 혼자 영어공부를 합니다. 영자신문, 헤럴드 트리뷴,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 중 적어도 하루 한 기사는 읽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닉 인천은 국제도시로 외국의 자매도시와도 활발히 교류 중인 것으로 압니다. 외국 자매도시와 어떤 교류를 하고 있나요?

시장 지금 요코하마 시장이 인천을 방문 중입니다. 요코하마는 인천의 자매도시예요. 요코하마 시장은 여성분인데 양 도시간 협력차원에서 영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러브스토리로 남여 주인공에 대한 캐스팅도 끝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남북분단 극복과 긴장해소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인천이 최전방으로 북한과 접하고 있어서 연평도 사건 등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평화정착을 위해 시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내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담 참석자

임란 무하마드(파키스탄, 남, 25, 외국인 노동자), 마크 핼리웰(영국, 남, 42, 인천시 외국인 공무원), 레오 아키라(핀란드, 남, 60, 파이박스 대표), 닉 채덕(영국, 남, 37, 인하대 강사), 까뜨린리(필리핀, 여, 28, 결혼이주인), 채드(미국, 남, 45, 인천대 교수), 피라 알 쿠파이(요르단, 남, 42, 아랍식당 운영)

희망의 바람이 분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비전을 향해 힘차게 뛰고 있다.
기업·사람·물류가 삼삼오오(3355) 인천으로 모여들어
활력이 넘치는 최고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리
인천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아보자고!

‘아껴쓰고’, ‘빌려 써’ 공간을 든든하게

우리시는 시의 살림살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재정운영 원칙을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들여’로 삼고, 행사비, 토목사업 등은 줄이고 교육, 복지, 보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늘리고 있다. 중앙부처와 취득세 인하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해 재정을 보전하고, 민자터널 협약변경으로 재정지원 연 28억원을 절감한다.



구도심, 다시 ‘보석’이 된다



구도심 분야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이뤄진다. 과다 지정된 구역을 조정하고, 재개발 기금 3조원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으로 동인천 북광장, 만석동 아카사키촌 개발을 추진한다. 도화구역 JST타운 및 행정타운 조성으로 주변을 활성화하고, 구도심의 교통망을 확충한다.

▲ 동인천 북광장 사업

‘벽’을 ‘문’으로... 시민의 목소리 더 가까이

민선5기 시정철학은 ‘소통과 화합’이다. 송영길 시장은 지하철 출퇴근, 시정일기, 트위터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 매월 시민과의 대화, 시민원로회의 등을 통해 외부 인사들의 자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쪽방촌, 재래시장 등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



인천에 모여라, 인천이 '일'낸다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은 창의, 도전, 열정을 가진 인재를 발굴, 성공창업을 위한 교육공간, 사업자금을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하는 인천형 창업촉진 프로그램. 이미 창업생 1기 75명이 교육 중이고, 하반기에 125명을 선발, 제2 창업교육생을 육성한다. 뷰티산업은 2014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화장품 산업을 선도하고 2014년까지 청년 일자리 10만개, 연간 국내외 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목표로 한다.

창업교육▶



무한복지, 무한행복의 실천

초등학교 3~6학년생 전체 226개교, 13만명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초·중학교 전면시행을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아부터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지급(인천에 1년 이상 거주, 출생·입양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한다. 전국 최초로 8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시 본인 부담금을 전액지원 하고 있다.



학력신장, 인재양성 교육도시

수능꿀찌, 학력 꿀찌의 오명을 벗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인재들이 타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도시 인천을 구현한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개교 육성, 잠재 성장형학교 15개교를 지원하고, 자사고, 자율형 공립고 등을 지정해 인천의 학력을 끌어올린다. 외국 유명대학의 캠퍼스를 유치, 인천으로 인재를 모으는 '송도글로벌캠퍼스'가 조성된다.



삼성 등 글로벌기업 몰려오다

삼성이 송도를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전진기지로 삼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 5공구 27만4천㎡에 오는 2020년까지 총 2조1천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과 신약 제조·연구시설을 설립한다. 삼성의 송도진출을 계기로 대기업들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려는 이르고 있다. 롯데그룹의 롯데쇼핑타운 건설, 대한항공의 왕산마리나 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과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로

‘책읽는 인천’을 위한 북카페, 숲속도서관이 조성된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채드워 인터내셔널스쿨 개교,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개장으로 문화의 격을 높였다. 그리고 환경논란에 휩싸였던 계양산 골프장과 인천만조력발전 건설을 반대하고 덕적도 등 옹진군 6개섬을 태양광, 풍력광을 사용하는 청정에너지 섬으로 조성한다.



이것이 진짜
친환경!

‘평화도시’로 남북을 잇다

우리시는 인도적 지원차원에서 북한 평양산원의 산모와 영유아에게 분유와 우유를 지원했고, 공동방역 차원에서 말라리아 방역물품을 북한에 전달했다. 남북경협 아카데미 개최, 인천컵국제유소년 축구대회, 6·15공동선언 11주년 국제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남북교류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우리시는 연평도 사태 이후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자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제정했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구축, 남북의 평화가 공존하는 터전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40억 아시아인이 감동할 수 있는 콘텐츠로 꾸며진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상징이 될 마스코트로는 천연기념물 백령도 점박이물범, 슬로건은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로 결정됐다. 5월부터 종목별 경기장 기공식이 열렸고, 6월 28일엔 서구 주경기장 기공식이 개최돼 아시아 경기대회 준비 상황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하루 빨리 인천에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싶다!

대~한민국!

인천으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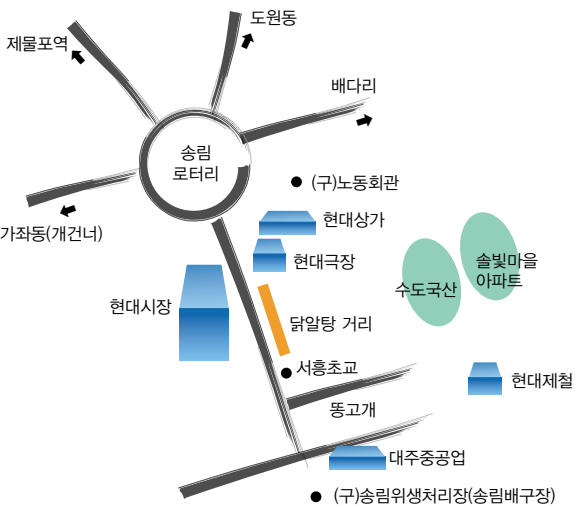
시민이 행복하고, 경제가 살아있는,
세계 속의 도시를 희망하며,
인천은 ‘쭉쭉’ 자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춰선 黑白 흑백 사진 그 속에 내가 있다

그 산은 사람들을 품었다. 1900년대 초 일본군이 중구 전동 부근에 주둔하면서 쫓겨 온 사람들이 산등성이에 움막을 지었다. 이어 6·25 전쟁이 터지자 황해도 등 이북 사람들이 산비탈에 숙단지를 걸었다. 그들은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했지만 반백년(半百年)의 세월을 넘기고 말았다.

6,70년대 접어들면서 공장 일자리를 찾아 충청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식솔을 이끌고 산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불꽃을 피어낸 장본인들이다. 송림산(松林山)은 그렇게 100년 넘게 사람을 안고 살았다. 이발관, 한약방, 목욕탕, 솜틀집, 국수집... 그 산을 터전 삼아 살던 사람들의 삶의 오랜 공간들이다. 한자리에서 4,50년은 기본. 아직도 그 곳에 남아 엄연한 현재의 사진첩을 구성하는 소재들이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내신 숨이 만들어낸 기억과 시간이 훑고 간 삶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송림산은 해발 58m의 아트막한 산이다. 나중에 수도국 배수지가 산정상에 들어서면서 ‘수도국산’으로 불렸다. 송림산을 동서로 나눈다면 한쪽은 송림동, 다른 한쪽은 송현동이다. 서쪽 송현동 기슭은 대부분 재개발되어 ‘솔빛마을’이란 동네가 되었다. 송림동 쪽은 아직 불도지의 삼낱을 피해가고 있다. 떠나고 들어오기를 몇 번. 주인은 바뀌었지만 집은 그대로 그곳을 지키고 있다.

애초에 빈 땅에 말뚝 박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동네는 산 모양대로 자연스럽게 터를 잡았다. 그래서 남의 집 마루와 안방을 지나야 내 집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기형적인 가옥들이 들어섰고, 사람이 죽어도 관조차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골목이 생겨났다. 등 굽은 골목들은 마치 쟁기질한 것처럼 길게 산 밑으로 구불구불 내려간다. 산 아래에는 송림로터리, 현대극장, 현대예식장, 동부시장, 노동회관 등 도시 기능의 요소를 두루 갖춘 ‘안 송림동’이 있다. 이곳이 송림동의 안쪽이요 그 밖은 송림동의 바깥이다. 6,70년대 송림동은 실제로 인천 도심의 끝이었으며 개건너 등 교외에서 들어오는 첫 지역이었다. 그 시절 ‘안 송림’은 일종의 다운타운이었다.

송림동의 '현대'타운

안 송림은 지대가 낮다. 동네 옆으로 바다와 통하는 갯골이 굽이 흘렀다. 주변은 온통 미나리깡 아니면 배추밭이었다. 낮은 곳을 북돋워 평지를 만들었지만 비만 오면 물이 고였고 사리 때는 바닷물이 범람하기 일쑤였다. 1965년도에 개교한 서흥초교 학생들은 한동안 등교할 때마다 연탄재를 들고 와 운동장에 던지는 게 일이었다. 이 별판에 곡마단 천막이 쳐지고 원숭이를 앞세운 약장수들이 모여면서 그 땅은 활기를 띠었다.

60년대 초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섰다. 500평 규모의 2층짜리 현대극장이다. 시내도 아닌 변두리에 극장이 들어선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이었다. 시내 영화관에서 몇 달 전에 내린 영화 두 편을 동시 상영했다. 주로 한국인이 만든 '중국'영화와 스토리가 엉성한 애로영화가 주로 올려졌다. 그나마 비가 줄줄 새는 필름은 끊어 먹기 일쑤였다. 그래도 인근 노동자와 서민들의 안식처요 시네마키드들에겐 꿈의 공간이었다. 영화 대신 땅딸이 이기둥, 비실이 배삼룡이 쇼를 하는 날이면 극장 앞길까지 인산인해였다.

현대극장은 지역의 랜드마크였다. 이 일대는 송림동이란 명칭보다 현대극장 동네로 통했다. 주변의 상가나 가게들은 '현대'라는 상호를 붙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근의 대한중공업도 현대그룹에 넘어가면서 '현대'제철이 되었다.

현대극장은 98년 2월에 문을 닫았다. 한동안 비어 있다가 지금은 할인마트가 들어섰다. 극장의 외관은 앞면만 조금 바뀌었을 뿐 지붕과 시멘트 벽 등은 개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뒷면 벽에 '현대극장'이라고 쓴 빛바랜 페인트 글씨는 시간의 흐름을 대변해 준다.

지붕과 뒷면 시멘트 벽은 개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 현대극장



① 얼마 전까지 영업을 한 송림점. '일감도 없고 힘도 없어서' 문을 닫았다는 ○○○할아버지(91세) ② 1971년,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주상복합상가인 현대상가. 지금은 간혹 영화촬영 무대로 사용된다. ③ 옛 노동회관 자리에는 동구청소년수련원이 들어섰다. ④ 일제강점기 수도사업소 사용된 송림2동 주민센터. 인천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주민센터 건물로 추측된다. 독특한 외형을 갖고 있는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돼 있지 않다.

현대시장과 현대상가

현대극장 바로 옆에는 현대예식장이 있었다. 중구 용동에 있는 신신예식장과 쌍벽을 이루던 예식장이었다. 김포, 강화는 물론 서구 지역에 마땅한 결혼식장이 없었기 때문에 시외버스가 닿는 이곳에서 결혼식이 많이 열렸다. 주말이면 하객을 실어 나르는 관광버스로 교통 혼잡을 빚곤 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제과점과 정형외과가 들어섰다.

그 뒤편으로 아주 독특한 2층짜리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중앙통로에 회랑이 길게 놓여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좁은 골목이 격자형으로 뻗어있다. 2층은 각 집을 통해서만 오를 수 있으며 각 동은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다. 여름 피약벌이 내리찍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곳곳에 백열등이 켜져 있다. 그만큼 어둡침침하다. 이 건물의 이름은 '현대상가'. 아래층은 가게, 윗층은 살림집인 일종의 주상복합건물이다. 상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 터는 인근에서 키운 배추 등 채소 경매가 이뤄지고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던 곳이다. 1970년에 현대상가 건립을 추진하면서 노점상들을 길 건너 시장 깡마당 빈터로 강제 이주시켰다. 71년 4월 현대식으로 지은 상가를 완공하고 연면적 13평 씩 점포당 300~350만원에 분양했다. 당시 집 한 채 값에 맞먹는 액수다. 그즈음 쫓겨난 노점상들은 결속을 다지며 상권을 형성해 그해 12월 24일에 동부시장을 설립한다. 이후 원예협동조합공관장, 동구상가, 궁현상가, 송육상가, 중앙상가 등을 '현대시장'의 이름으로 아우르며 한때 인천 최대의 시장으로 발전한다. 반대로 현대상가는 몇몇 포목점들이 장사를 했을 뿐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았다. 결국 상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1층 가게도 값싼 주택으로 세를 주면서 점차 슬럼화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경쟁에서 밀려난 채 초췌하고 늑수그레한 모습으로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노동회관 구내 이발소에서 30년, 회관이발관에서 20년, 50년 세월 '가위손 인생' 이송열 사장



전통방식으로 국수를 만드는 송림동 국수공장. 간판도 없는 이 집에서 30년 이상 국수를 뽑은 이씨 할아버지

노동회관 이발소

현대극장 못지않게 유명한 건물이 노동회관이었다. 한국노총의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지만 지역 복지회관의 성격이 강했다. 원래는 50년대 말 혹은 60년대 초에 현대극장 자리에 세우려고 했으나 땅을 파고 보니 개펄이 나와 포기했다. 제삼교회 바로 앞에 터를 잡은 3층 건물에는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예식장, 식당 등이 들어섰다.

지역민에게 인기 있던 시설은 바로 목욕탕과 이발소였다. 다른 이발소가 200원 할 때 회관 구내이발소는 30원이었다. “영등포, 수원 등에서 날 잡아서 온 가족이 머리를 자르러 왔어요. 이발한 후 목욕하고 자장면 한 그릇 먹고도 돈이 남거든. 한창 때는 이발사만 15명을 두고 일했어요.” 2000년 동구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기 전, 끝까지 노동회관에 남았던 구내이발관 이송열(71) 사장의 설명이다. 한국노총이 떠나면서 회관이 폐쇄하자 그는 바로 옆에 ‘회관이발관’을 열고 지금까지 가위를 놓지 않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35세 아들이 같은 자리에서 가위손의 대를 잇고 있다.

현대극장 옆으로 알록달록한 간판을 단 주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닭알탕을 주메뉴로 파는 집들이다. 닭알은 죽은 암탉의 배속에서 꺼낸, 달걀이 못된 알이다. 50년 전 맛은편 현대시장 닭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닭알을 포장마차에서 얼큰하게 찌개로 끓여 내놨다. 현대제철과 인근 철공소에 다니던 노무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후 공략주점을 시작으로 형제, 창석, 왔다, 풍차, 현대주점 등 6곳에서 앞다뒀 닭알탕을 칼칼하게 끓여내면서 닭알탕 거리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통공장과 배구장

송림동과 송현동의 접경 지역인 서흥초교 옆으로 가파른 고갯길이 나있다. 사람들이 ‘똥고개’라 부르던 마루턱이다. 송림동 사람들이 수도국산 옆으로 해서 화수동, 만석동으로 다니던 길이다. 이 고개를 따라 배추, 호박, 복숭아 등을 키우는 밭이 널려 있었다. 그 밭에 똥거름을 주었기 때문에 ‘똥고개’라는 이름을 얻었다. 겨울이 되면 얼어붙은 구덩이에 아이들이 빠지는 난감한 일이 종종 생기기도 했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금의 송림동 이마트 자리는 매립하기 전에는 바다였다. 인분을 실은 똥차들이 이곳에다 똥을 버렸다. 바로 옆 염전에서 먹을 감던 아이들은 변소에 빠트린 똥전을 줍기 위해 똥차를 따라 다녔다. 실제로 똥차는 똥전을 흘리고 다녔다.

송림동이 인분과 맺은 인연은 오래 갔다. 1977년 똥고개 옆 송림6동 대주중공업 뒤편에 송림위생처리장이 세워졌다. 이전에 송의동과 연희동 등에서 처리했던 인천 전역의 분뇨를 9천평 규모의 이 ‘똥공장’에서 처리했다. 여름날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역한 냄새에 주민들은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동네에서는 밥 먹는 시간을 배꼽시계에 맞추질 않았어요, 처리장이 가동을 멈췄을 때 바로 손가락을 들었을 정도였어요. 냄새 대단했지...” 송림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주윤배(53)씨는 불현듯 기억 속의 냄새를 맡았는지 미간이 살짝 접혔다.

이 처리장은 1996년 9월에 폐쇄되었다. 이 부지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배구장으로 재탄생했다. 똥공장 자리에 세워진 배구장의 이야기는 송림동의 극적인 발자취의 하이라이트다.



주변이 인분 투성이었던 ‘똥고개’. 송림동에서 화수동, 만석동으로 가던 마루턱이다.

(구)송림위생처리장의 모습. 지난 6월 23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배구장 기공식이 있었다.



7월 1일~7월 7일 제7회 임정옥 개인전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7월 1일~7월 7일 제31회 인천광역시 공예품대전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7월 1일~7월 7일 인천여성서양화대전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미주홀실

7월 1일~7월 15일 박치성 유작전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기온갤러리

7월 8일~7월 14일 제4회 사랑의 열매 아트페어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7월 15일~7월 21일 인천-수원 수채화대회 교류전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전전시실

7월 15일~7월 21일 한국미술여성작가회창간전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7월 15일~7월 21일 초등미술교실 보육교사 작품전시회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미주홀실

7월 21일~7월 31일 박영실 필트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기온갤러리

SUN	MON	TUE	WEN	THU	FRI	SAT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10회 정기연주회 <비제 그리고 라벨>						
비제의 세련된 선율과 라벨의 형식미를 즐길 수 있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제310회 정기연주회. 특히 이번 연주회는 '한국 피아노계의 미래'라 불리는 피아니스트 손영음의 인천 첫나들이이자 금년새 예술감독과의 첫 만남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2009년 반 클라이버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과 최우수 실내악 연주 상을 차지하며 세계 음악계에서 급부상 중인 피아니스트 손영음은 라벨의 원숙한 손끝에서 아우러진 '피아노협주곡 G장조'를 연주한다. '놀라운 흡인력의 소유자'인 그녀가 들려주는 신명하고 화려한 아름다운 대담과 이국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일시 7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3 어린이용특별이무저렴 <호비쇼>
오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R석 305천원, S석 3천원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 1588-2341

백금토끼 <시몬의 비밀>
오후 5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R석 5천원, S석 4천원
☎ (주)이도돌 423-4030

일도국악앙상공연 "열쑤"
<타자대 교류공연II>
오후 7시 / 무료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 인천광역시 518-4511



6 뮤지컬 <응답하라 1994>
오후 10시 40분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5천원
극단시몬
☎ 102-2854-6854

소리꾼 박준정선생의 서도소리 배틀이웃 찬양
오후 7시 30분
부평문화사랑방
전석 3천원
☎ 507-5886

7 제10회 인천여성대회 및 여성주간행사
오후 1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초대
☎ 여성정책과 440-2862

8 신화 그 세가지 풍경
오후 7시 30분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R석 2천원, S석 1천원
최종두공연 ☎ 070-7603-6964

황금토끼 <인어공주>
오후 7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무료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 420-2742

마음관객소 판 게르니카를 온 몸으로 표현하다
오후 7시 30분 / 전석 3천원
부평문화사랑방 ☎ 505-5886

9 총서창간공연 <태극음악회>
오후 3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초대
☎ 여성정책과 440-2762

황금토끼 <인어공주>
오후 7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무료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420-2744

2 어린이용특별이무저렴 <호비쇼>
오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R석 305천원, S석 3천원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 1588-2341

백금토끼 <시몬의 비밀>
오후 5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R석 5천원, S석 4천원
☎ (주)이도돌 423-4030

인천시립합창단의 <오페라 걸과 몬스터>
오후 7시 / 무료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 420-2744

가족뮤지컬 <노틀담의 꿈>
오후 3시, 6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세리제홀
전석 6천원, 학생 무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팀
☎ 760-3455



10 오라시랑니몬서트
오후 5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3천원
☎ 010-5223-5527

일도국악앙상공연 "열쑤"
<전통타자대 교류공연II>
오후 7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무료
☎ 인천광역시 518-4511

12 뮤지컬 <해님달님>
오후 4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5천원
사행극단코파세상
☎ 572-4281

13 뮤지컬 <해님달님>
오후 4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5천원
사행극단코파세상
☎ 572-4281

14 뮤지컬 <해님달님>
오후 4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5천원
사행극단코파세상
☎ 572-4281

15 황금토끼 <남자가 남자를 노래하다>
오후 7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무료
☎ 420-2742

인화시립교향악단의 <브람스칸타텔라>
오후 7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무료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 420-2744

(비너벤드의 Fun Fun 음악회)
오후 4시 / 전석 6천원, 학생 무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팀
☎ 760-3455

16 뮤지컬 <남자가 남자를 노래하다>
오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2만 원
극단유리가면 ☎ 1544-3901

황금토끼 <인어공주>
오후 7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무료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 420-2744

(비너벤드의 Fun Fun 음악회)
오후 4시 / 전석 6천원, 학생 무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팀
☎ 760-3455

17 뮤지컬 <황해산은 괴물이>
오후 1시, 3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2만 원
극단유리가면 ☎ 1544-3901

일도국악앙상공연 "열쑤"
<산악기프로젝트>
오후 7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무료
☎ 인천광역시 518-4511

7기이행비오케스트라 창간총회
오후 6시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2층 세리제홀
무료
☎ 010-6345-2304

24 나노포터 탄생 100주년 기념콘서트
오후 4시, 7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전석 8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 438-5040

19 카바레콘서트IV <귀족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오후 4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 원
☎ 420-202

20 카바레콘서트IV <귀족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오후 4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 원
☎ 420-202

21 카바레콘서트IV <귀족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오후 4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 원
☎ 420-202

22 제310회 정기연주회 <비제 그리고 라벨>
오후 7시 30분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 시립교향악단 1588-2341

가족과 함께하는 타임콘서트 <유쾌한 드러머>
오후 8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2만5천원 ☎ (주)하늘이엔티 1589-2341

황금토끼 <남자를 울려라-브라스캄스타>
오후 7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무료 /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 420-2742

극단여가미와 함께하는 즐거운 동요세상
오후 7시 30분
부평문화사랑방 / 전석 3천원
☎ 505-5886

23 가족과 함께하는 타임콘서트 <유쾌한 드러머>
오후 7시 30분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2만5천원
☎ (주)하늘이엔티 1589-2341

31 인천시립교향악단 <황해산은 괴물이>
오후 1시, 3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전석 8천원, 학생 무료
인천시립교향악단
☎ 438-5040

26 나노포터 탄생 100주년 기념콘서트
오후 4시, 7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전석 8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 438-5040

27 뮤지컬 <내 몸은 소중한대>
오후 10시 40분, 오후 4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전석 1만5천원
☎ 극단성성 010-6757-1948

28 뮤지컬 <내 몸은 소중한대>
오후 10시 40분, 오후 4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전석 1만5천원
☎ 극단성성 010-6757-1948

황금토끼 <해박술집-Shall We Dance>
오후 7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무료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 420-2742

29 뮤지컬 <내 몸은 소중한대>
오후 10시 40분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전석 1만5천원
☎ 극단성성 010-6757-1948

황금토끼 <해박술집-Shall We Dance>
오후 7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무료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 420-2742

30 아시아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회
오후 7시
인천중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R석 7천원, S석 5천원, A석 3천원
☎ 인88아트 420-2027~8



인천만 조력발전 공식 반대

송영길 시장이 환경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송영길 시장은 지난 6월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과 관련 지역 내 갈등·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또 “환경파괴가 수반되는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정부는 해양에너지를 활용하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인천·강화 갯벌은 천연기념물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일부 지정돼 있고 유일하게 한강 하구 갯벌로 수만 마리 새들의 서식처”라며, “어민들의 생활터전으로 생산성과 생물다양성에 있어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이날 바이오가스 자동차 연료화시설 준공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한 유영숙 환경부 장관에게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 강화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면적은 704㎢이다. 유일한 한강 하구 갯벌로 수만마리 새들의 서식처이며 어민들의 생활터전이다. 문의 : 환경복지국 440-3511

용유·무의 개발에 중동 투자 기대

인천경제자유구역 용유·무의 개발사업에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자본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시장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아부다비, 카타르를 방문해 용유·무의



개발사업을 홍보하고 투자 유치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송시장은 협의 결과, 특히 세계 1위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송시장은 “아부다비투자청 등 중동 자본 유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지연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 용유도 무의도 전 지역 24.4㎢에 들어설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더 원 시티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호텔그룹 ‘캠핀스키’가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성공적인 투자사업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인천 투자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원 시티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이 7월 말 설립되면 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인천경제청 453-7612



송 시장, 민주당에 ‘인천대 법인화’ 처리 요청

송영길 시장은 지난 6월 20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송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의 열악한 고등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대 법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는 시민들도 지지하는 사안이고 교수, 학생, 동문 등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법률안이기에 때문에 서울대 법인화 문제와는 별개로 조속히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만 유일하게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점을 들어 시립 인천대의 국립대학법인 전환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문의 : 교육지원담당관실 440-2172



해수욕장 이달 초·중순 개장

인천지역 해수욕장들이 이달 개장을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6월 28일 개장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외에도 용유도 선녀·왕산 해수욕장과 무의도 실미·하나개 해수욕장이 7월 1일 문을 열었다. 또 인천에서 가장 많은 23개 해수욕장이 있는 옹진군의 경우 영흥도 십리포·장경리 해수욕장이 7월 14일, 나머지 21개 해수욕장은 7월 15일 일제히 개장한다. 강화군 동막·민머루 해수욕장은 별도의 개장일 없이 운영한다.

문의 : 옹진군 관광문화과 899-2232



인천경제청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선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 20일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컨벤시아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선언식’을 개최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020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탄소배출량을 연간 배출전망치(BAU) 대비 38% 줄이기로 했다.

분야별 세부 목표는 물 재이용 40%, 자원순환 76%, 신재생에너지 7% 보급, 1인당 녹지면적 48㎡ 확보, 건축물 에너지 등급 기준 강화 등이다.

문의 : 인천경제청 453-7045

2014 AG 경기장 차례로 착공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를 경기장이 순조롭게 착공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문학경기장(수영), 6월 13일 계양경기장(배드민턴·양궁), 6월 15일 남동경기장(체조·력비), 6월 21일 십정경기장(테니스·스쿼시)이 차례로 착공식을 가졌다.

또 6월 28일 서구 주경기장(개폐회식, 육상)을 비롯한 6월 23일 송림경기장(배구)이 착공되는 등 6월 중에 9개 종목경기장이 모두 첫 삽을 떴다.

한편 7월과 9월에 각각 강화경기장(태권도,우슈, BMX)과 선학경기장(유도,레슬링, 하키)을 착공할 예정이다.

문의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440-4169

인천 미단시티 재미동포타운 9월 착공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내 미단시티에 조성하는 재미동포타운(KAV)을 오는 9월 착공한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재미동포타운은 7만㎡의 부지에 아파트형 노인복지주택 720가구와 오피스텔 1천326실, 레지던스호텔 243실, 6층 골프장 등을 갖추고 들어선다. 분양대상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다.

총 사업비가 6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개발프로젝트인 미단시티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 일대 184만1천㎡에 2020년까지 조성하며 1단계로 2014년까지 카지노 리조트호텔, 주상복합단지, 국제헬스케어센터, 국제학교, 재미동포타운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문의 : 인천경제청 453-7291

내년도 국고보조금 1조9천억원 신청

우리는 내년도 국고보조금을 올해 1조5천199억원보다 3천999억원(26.3%) 늘어난 1조9천198억원으로 결정해 정부 각 부처에 신청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 관련 774억원,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2천62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244억원, 도서주민 생활지원금 615억원 등이다.

시·도가 신청한 국고보조사업은 부처별로 예산안을 확정된 뒤 기획재정부 조정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출된다.

시는 국고보조금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문의 : 예산담당관실 440-2243

인천-대구, 국제대회 업무지원 협약 체결

우리는 대구시와 ‘국제대회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송영길 시장과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난 6월 10일 시청에서 만나 협약서에 서명하고,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시와 대구시는 대회홍보와 입장권 판매, 단체관람, 공무원 교류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간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육상선수권대회는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대구에서 개최하며 212개 국가에서 총 6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구모 국제대회다.

문의 : 자치행정국 440-2426

강화역사박물관서 10월 외규장각 도서 기획전시

14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도서 기획전시가 우리시 강화역사박물관에서 오는 10월 중 열린다. 이 전시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 기념 전국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약탈 전 도서를 보관했던 강화군의 역사성을 고려해 순회 전시 첫 번째로 개최한다. 외규장각은 1782년 조선 정조가 왕실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립한 국가도서관으로, 프랑스가 1866년 병인양요 당시 이곳의 도서들을 약탈해 갔다.

문의 : 강화역사박물관 934-7887



日 자동차 부품기업 적극 유치

우리시는 7월 1일 예정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기를 맞아 일본 부품소재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나선다. 시는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 경제청, 코트라 등과 함께 일본기업유치단(단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구성해 일본 나고야·후쿠오카 지역 기업들과 접촉했다.

시는 또 관계기관간 연대를 강화하고(Federation),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Targeting), 맞춤형 공간을 확보(Area)하는 'F·T·A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서울재팬클럽, JETRO, 인천소재 일본합작사 등 일본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 투자유치담당관실 440-3292

제2행정타운 도화구역에 건설

우리시는 남구 도화구역에 조성하는 '제2행정타운'을 내년 말까지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도화구역 내 9천㎡의 부지에 지상 10층 짜리 건물 2개 동(연면적 2만2천900㎡)을 새로 지어 상수도사업본부와 경제수도추진본부 등 시 산하 6개 기관·부서 직원 450여 명이 근무하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의 창업지원기관인 제물포스마트타운(JST)도 함께 입주시킬 계획이다.

또 충남 홍성시에 있는 4년제 산업대인 청운대가 최근 인천대 옛 본관 건물 등을 활용해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을 시에 제안, 행정타운 구상을 변경하게 됐다.

문의 : 도시계획국 440-4461

통합데이터센터 8월 준공

인천시청 내에 건립 중인 통합데이터센터가 오는 8월 준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6천443㎡ 규모로 전산실과 서버, 네트워크장비,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등 첨단 그린 통합데이터센터를 갖추어 짓는다. 센터가 세워지면 정보자원이 하나로 통합,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2013 전국체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중앙정보처리센터(MDC)로 활용해 약 30억원을 절감하고 시의 교통, 숙박, 문화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서비스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종합건설본부 440-5261

자유공원 '토요 상설공연' 개막

우리시가 주최하고 인천예총이 주관하는 '2011 자유공원 토요 상설공연'이 지난 6월 4일 개막했다. 이 공연은 오는 10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광장 특설무대에서 2시간 가량 진행한다. 공연 '소통과 융합, 열정과 도전, 균형과 상상'을 콘셉트로 콘서트, 댄스스포츠, 비보이, 미술 공연 등으로 연다.

매회 공연에 앞서 오후 4시부터 네일아트, 자장면·쫄면 시식, 가훈 써주기, 관광기념품 시연 등의 부대행사가 열린다.

문의 : 문화관광체육국 440-4068

일자리창출·기업활성화에 SNS 활용

우리시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는 청년(시민)인재를 육성해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셜시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SNS(활용, 소셜커머스, 앱, FNC) 등 관련교육을 실시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핵심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청년일자리를 앞선하게 된다. 한편 이번 달에는 취업지원담당자 대상의 SNS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경제수도추진본부 440-4244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인천시의회(의장·류수용)는 지난날 14일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보궐선거의 건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24일간의 정례회를 시작했다.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 및 관광자원화 토론회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날 14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강병수 의원이 진행을 맡고, 국립수산물연구원 고래연구소 박태건 책임연구원이 '백령도 점박이물범 서식현황'과 녹색사회연구소 김경화 사무국장이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한 노력과 과제'를, 상지대학교 유기준 교수는 '생태관광의 이해와 전개'를 주제로 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강호 문화복지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이 원활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보호에서 관광자원화 및 백령도 관광활성화 방안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지는 토론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의장에 류수용 의원 선출

인천시의회는 지난날 14일 본회의를 열고 공석이 된 의장에 민주당 류수용(柳洙龍, 61, 부평구 제5선거구) 의원을 선출했다.

류 의장은 전체 시의원 37명 중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의장 선거에서 28표를 얻어 당선됐다. 류 의장은 4선의 부평구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인천시당 상무위원을 맡고 있다.

류 의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감시와 견제, 협력과 조화로 민심을 대변하는 의회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특위 간담회

인천시의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날 7일 특위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현황검토의 건 ▷아시아경기대회 국고지원 촉구 건의의 건 ▷아시아경기대회 국고지원 요청 인천시민 100만명 서명운동의 건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공청회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날 16일 오후 2시 시의회 회의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시의회 정수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고,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취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다양하여 위원회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개최됐다.

특별위원회 | 지방재정건전화특위

시 재정이 가야할 방향성 제시



우리시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재정이 어려운 주된 이유가 방대한 사업진행 탓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시의 공간이 더 이상 위기를 맞지 않게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인천시의회 지방재정건전화특위위원회(위원장 이성만)는 방만하게 운영됐던 시 재정을 건전케하고, 부채청산을 위해 시 집행부에 예산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성됐다. 특위는 그간 시 집행부 사업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고, 여러차례 워크숍을 통해 우리시 재정불건전성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부채발생의 원인은 무분별한 부동산개발 사업의 확대, 도시철도, 각종도로, 공원조성 등 무리한 개발사업 진행,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배려 부재 등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시가 진 부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민들의 삶과 연결된 부분이 많다. 하수도정비, 공원사업, 청소년회관 등 공공시설 조성에 쓴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 특위는 부채를 줄이기에 앞서 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주장한다. 공공시설

조성은 시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연속성과 형평성을 가지면서 시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시 내부에 부채 관리 매뉴얼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지만 부채청산에 계획을 세우고 매뉴얼대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큰 틀에서 사업에 대한 항목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시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얻고자 지난 6월 22일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 토론회를 열었다. 인천시의 재정현황, 부채증가 원인,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등 그간 특위의 활동내용을 특위 소속 의원들이 발제했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특위는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낸 의견, 제안을 받아 위원회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위는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시 재정의 잘못된 프레임(구조)을 개선하고, 타시도와의 교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예산 배분의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고민하기 위해서다. 특위는 재정문제는 집행부에서 기준을 잡아야만 예측 가능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터뷰 _ 이성만 재정건전화특위 위원장

부채해결, 시민공감대 형성 필요



“우리시 공간 위기를 부른 원인에 대한 분석은 끝났지만 앞으로 재정을 건실히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재정건전화특위 이성만 위원장(50, 부평구 제1선거구)은 지난 6개월간 인천시 재정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성만 위원장은 “인천시 부채는 시 자체적인 부채에다 도개공의 빚이 큰데 이게 다 투자자산으로 감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의 사업이 성공하면 괜찮지만, 실패하면 위기로 갈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 앞으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7호선 연장 등 대규모 사업에 돈이 추가로 들어가므로 부채규모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부채에 대한 시민공감대 및 합의 도출을 강조했다. 즉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시설, 공원만들기, 복지, 하수도정비 등에도 시 예산이 투입되고 결국 이것도 부채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부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후세대가 부담을 떠안게 되기에 시민의 삶의 질과 시 재정간의 조절과 조화를 이루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산을 짜는데 정책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시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관리 매뉴얼을 실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위원장은 6개월 연장된 특위활동에 대해서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는 세밀한 대안제시에 활동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클릭! 시의원 _ 배상만 의원(교육위원회)

주인정신이 ‘큰 교육’ 만듭니다

“40년간 인천의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지금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천에 다시 환원한다는 일념으로 아이들과 교사가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것이 교육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배상만 의원(64, 남.중구, 웅진)은 지난 40년간 교사, 교장, 교육청장을 두루 거친 현장전문가이지만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남다른 고민이 많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업에서 나온다는 교육철학을 실현하고, 인천을 그 어느 도시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 싶었다. 배 의원이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으로 입성한 이유다.

배 의원은 지난 1년간 ‘인천인을 위한 좋은교육, 인천인을 위한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어려운 교육문제를 개선하고, 대변하는 데 교육위원으로 역할을 다해왔다.

배 의원은 워킹맘에 대한 이해가 깊다. 본인도 맞벌이 부부로 일했었기에 누구보다도 워킹맘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잘 안다. 배 의원은 워킹맘들의 육아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 보육시설의 확대 ▷유아교육비 대폭 지원 ▷원스톱(one-stop)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앞으로 인천사랑 교육운동을 전개하고, 의회에 특위도 만들 계획이다. 교육을 통해 인천시민들에게 주인정신, 시민정신을 심어 주자는 취지다.

배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작은 학교들이 많은데 학교 살리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학교는 경제적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강한 믿음 때문이다. 학교가 있음으로 지역공동체 형성, 문화가 조성되기에 작은 학교는 꼭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배의원은 오늘도 신발끈을 고쳐 매고 있다.



해수욕장으로 전국 최고 유원지 명성

어디서 온 섬일까. 언제, 어디서 우리 곁으로 떠나려 왔는지 모르는 작은 섬, ‘달 꼬리 섬’ 월미도(月尾島). 그러나 정상에 올라 굽어보아도 앞쪽 응봉산에서 건너다보아도 생김새가 ‘달 꼬리처럼 길게 휘어져’ 보이지는 않는다. 소월미도를 꼬리처럼 길게 달고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을 달의 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1659년, 조선 숙종 때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월미도’를 ‘어을미도(於乙味島)’라 이른 대목을 보아도 그 같은 이야기가 허구임을 짐작케 한다. 그 후 ‘어을미도’가 ‘월미도’로 축약돼 불리고, ‘대동여지도’ 등에 ‘행궁(行宮)’과 함께 ‘월미(月尾)’라는 표기가 등장한다. 과연, ‘어을미도’는 무슨 뜻일까? “우리말을 한자의 소리만 빌어 나타낸 것이며, ‘어을(於乙)’은 곧 우리말 ‘얼’이다. ‘얼’은 ‘섞이다’ 혹은 ‘사귀다’는 뜻이다. ‘미’는 한자로 여러 가지 글자로 쓰지만, ‘물[水]’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석하면, ‘월미도’는 ‘물이 섞이는 섬’ 정도의 뜻이 된다.”

글 조우성 시인 ·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월미도 조탕에 걸렸던 범람으로 만든 간판
(사진 _ 홍승훈 자유사진가)

전국에 이름 떨친 임해유원지

믿기 어렵지만, 그 옛날의 제물포는 ‘극동의 나폴리’라고 불릴 만한 미항이었다. 1888년 프랑스의 작가이자 세계적인 여행가인 샤를르 바라는 자신의 기행문에서 제물포의 풍광을 이렇게 전했다. “다음날 아침,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잠을 깬 나는 부랴부랴 갑판으로 올라갔고, 제물포의 경탄할 만한 광경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그것은 내가 평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장관이었다.” 제물포의 주요 경승인 월미도 역시 샤를르 바라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리라. 철도국은 1920년 경인선에 임시 ‘화열차(花列車)’를 운행했다. 이는 월미도 벚꽃의 유명세를 이용해 철도 수입을 올리려는 방편이



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향락객들을 나룻배로 실어 나르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육지와 월미도를 잇는 독길이었다. 독길은 1922년에 완공되었다. 철도국은 독길 완공과 더불어 월미도를 국내 최대의 임해 유원지로 만들어 나갔다. 야외 캠퍼장, 해수욕장, 식물원, 운동장, 사슴 사육장 같은 위락 시설과 함께 해수 풀장과 조탕(潮湯)을 개장했다. 월미도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해수풀장과 바닷물을 데운 공동 목욕탕인 조탕이 신설되면서부터이다. 봄에는 벚꽃놀이, 여름에는 해수욕, 그리고 겨울철에는 따듯한 건강욕을 즐길 수 있어 원산의 송도원, 부산의 해운대를 제치고 최고의 유원지로 등극했다. 그 무렵 조선팔도 백성들의 소박한 꿈은 단 하루라도 월미도에 가 호사를 누리는 것이었다. 월미도가 점차 명성을 얻어가자 1923년에는 임해학교(臨海學校)가 세워지고, 그 이듬해 에는 자동전화를 설치했다. 봄철이 되면 인천사진구락부의 촬영대회가 열려 성황을 이루었다. 또 비행사 장덕창(張德昌)이 수상 비행기를 몰고 와 소월미도 해상에 내려앉아 전국적인 화제를 낳기도 했다. 그 후 철도청은 조탕 시설을 민간에게 불하했다. 민간업체는 풀장을 크게 증설하고, 만조가 되면 물에 떠 있는 듯이 보이도록 설계를 한 용궁각(龍宮閣)이라는 요정도 문을 열었다. 용궁각에서는 내로라하는 인천권변(仁川券番 · 인천 기생들의 조합) 소속 기생들이 춤과 노래를 공연해 전국의 한량들을 유혹하기도 했다. 1935년 무렵에는 목조 2층짜리 ‘빈(濱)’ 호텔까지 생겨 이름을 날렸다. 월미도의 번영은 3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시체제에 들어가자 월미도는 다시 먹구름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고 광복을 거쳐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모든 시설이 파괴되는 비운을 다시금 겪게 된다. 전후 남은 것이라고는 야외 해수풀장 하나뿐이었다.

군사 기지에서 ‘문화의 거리’로

1953년 여름,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은 막을 내렸지만, 월미도는 숙명처럼 다시금 군사 기지가 되었다. 미군의 콘서트 막사 등이 들어서고 부두에는 밤새 귀한 전등불이 환히 밝혀진 별천지였지만, 금단의 고도(孤島)였다. 월미도가 군사 기지에서 시민의 휴식처로 탈바꿈한 것은 1989년이였다. 해안가를 ‘문화의 거리’라 명명하고, 국내 최초의 식당 관광유람선 ‘코스모스’호가 취항했다. ‘이별의 인천항’ 노래비, 각종 조각상, 대형 닻과 친수 계단, 야외무대 등을 설치했으며 특히 한국이민사박물관은 관광명소로 인기가 대단하다. 하지만 월미도의 옛 모습은 오늘 되찾아보기가 어렵다. 그 수려한 유원지의 경관은 모두 오랜 사진엽서 속에 남아 있는 추억들이 돼 버린 것이다.

별난 역사, 별난 물건 시리즈에 게재된 조탕 관련 물건 및 사진은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는 〈인천근대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희귀한 근대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성인 2천원, 학생 1천원. 문의 764-1988

도서관을 서재로 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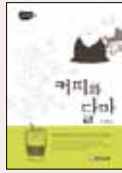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젊은시절 영혼의 방랑기에 나를 지탱해준 책, 아이들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준 동화책이나 소설책,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 밤을 낮 삼아 읽어 내렸던 책 등, 집안 서가에 꽂혀있는 책들엔 저마다 소중한 사연이 담겨있다. 나를 키워주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소중한 책들을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는 자발적 도서기탁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의 울림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책읽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다. 지역의 명사나 기업이 도서관에 자발적으로 기탁한 도서는 ‘기업문고’, ‘개인문고’로 이름을 만들어 다른 도서관들과 마찬가지로 시민에게 대여한다. 도서기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명사의 서재-1호 ○○○’, ‘인천의 서재-1호○○○문고(기업명)’ 등으로 기증자의 실명을 넣어 누가 책을 기증했는지 대출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서가를 꾸민다. 실제로 동구 화도진도서관에는 시조시인이자 우리시 시사편찬위원으로 활동한 최성연 선생이 기증한 도서로 이뤄진 ‘최성연 문고’를 만날 수 있다. 최 선생이 기증한 도서와 그림, 사진은 개항기 인천과 6,70년대 인천의 옛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도서관 담당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귀중한 자료가 기증 도서관에 다들 깜짝 놀란다”고 말하고 “오랫동안 간직한 분들의 오랜 손때가 묻은 기증도서 운동이 활발해져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다 전달 됐으면 한다”고 말한다. 송영길 시장도 오는 7월 8일 시립 율목도서관 개관식에서 오랫동안 간직해 온 장서를 기증한다. 이어 실·국장들의 기증이 있게 되고, 지역명사들의 책 기증이 릴레이로 이뤄질 예정이다. 기증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시청이나,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인천지역 도서기능 안내서비스’를 보면 도서기증 기준·기증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인천도서관 협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기증자료는 멀티미디어, 시청각자료, 일반도서, 학술도서 등 모두 가능하지만 출판연도가 일반도서 5년 이내, 기술도서는 2년 이내여야 한다. 단 개인문고 및 고서(희귀자료)의 경우 발간연도 기준은 없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책 읽는 도시 추진 독서 인프라 구축이 활발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의 서평



커피와 달마

강성률 | 평단문화사 | 2010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15분’ 동안 바르게 앉아 좌선을 하는 것이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과 변화를 가져오는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전달한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적 깨달음을 얻게 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불교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



조혜련의 미래일기

조혜련 | 위즈덤하우스 |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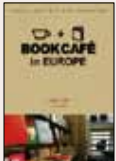
저자인 조혜련이 몸소 실천하여 체득한 꿈을 이루어내는 비결을 ‘미래일기’라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소개한다. 미래일기는 추상적이고 구름 같은 꿈을 더욱 선명한 비전과 목표,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꿔준다고 한다. 이처럼 궁극적인 목표치가 자신의 뇌 속에 각인됨으로써 자신감과 지혜를 키워준다는 것이다.



패션과 권력

박종성 | 서울대학교 | 2010

〈패션과 권력〉은 정치학자로서 새로운 관점에서 정치학 연구를 계속해 온 박종성 교수가 패션이 단순히 의상이나 디자인의 대상이 아니라 곧 권력이라는 전제하에 패션과 시선권력으로 세계사를 재해석한 책이다. 저자는 몸이 정치의 주체이자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패션의 역사와 세상의 관계를 따져 묻는다.



북카페 인 유럽

구현정 | 예담 | 2011

〈북카페 인 유럽〉은 독일에서 생활하며 책과 카페를 사랑하는 네이버 파워블로거의 북카페 탐험기다. 베를린, 칼프,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뮌헨 등 저자의 바쁜 일상을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해준 독일 여러 도시들의 북카페와 스페인, 체코,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그곳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제별 추천도서

자료제공 인천시 미추홀도서관 440-6655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철학스캔들	강성률	평단문화사	공자에서 사르트르까지 벌거벗은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이야기
공자씨의 유쾌한 논어	신정근	사계절	마음대로 골라 읽고, 겹쳐 읽고, 찾아 읽는 ‘논어’
커피와 달마	성재현	한결음더	커피 한잔의 시간이 내 삶을 바꾼다!
골목에 꽃이피네	정외영	이매진	녹색마을사람들의 신명나는 이웃살이 이야기
패션과 권력	박종성	서울대학교	또 다른 지배와 복종
행복한 물리여행	최준곤	이다미디어	과학은 인간의 사소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나노에 둘러싸인 하루	김문제	살림	우리 생활은 나노랑 언제랑 함께래!
길 걷는 디자이너	정수하	멘토프레스	세계여행을 하며 인생과 디자인을 배웠다!
만들어진 아동	조셉 조네이도	마고박스	문화 이데올로기 아동 이야기
조혜련의 미래일기	조혜련	위즈덤 하우스	원하는 미래를 일기장에 쓰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잉카최후의 날	김 매쿼리	옥당	16세기, 잉카 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북카페 인 유럽	구현정	예담	당신의 지식과 감성을 채워줄 유럽북카페 여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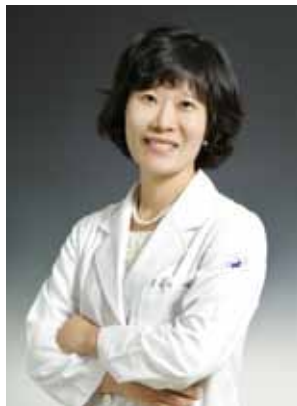
〈이달의 인천작가〉

김영승

1959년 10월 23일 인천 출생. 1986년 ‘세계의 문학’에 〈반성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시집 〈반성〉(1987), 〈취객의 꿈〉(1988), 〈아름다운 폐인〉(1994), 〈권태〉(1994), 〈무소유보다 더 찬란한 극빈〉(2001), 〈화창〉(2008) 등을 간행했다. 1980년대는 현실을 특유의 해학으로 극복한 〈반성〉, 연시적 분위기를 저변에 깔고서 가혹하게 자아를 성찰하며 세상사의 이면을 뒤집어 보고있는 〈취객의 꿈〉, 풍자와 야유의 방법으로 세상의 허위와 기만에 대응하는 〈차에 실려 가는 차〉(1989), 슬픔의 정조를 지닌 독설과 자학으로 권태에 대한 공격과 그 공격 자체에 대한 권태를 그려낸 〈권태〉 등의 시집에 실린 그의 시는 뒤틀림과 외설, 자조, 야유, 탄식 등을 통해 자아 성찰을 위한 노력 및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더운 여름, 음식 조심하세요

글 김은아 인천의료원 5내과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각종 세균이 쉽게 번식해, 급성장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더울 것이란 예보가 있으므로 장염을 예방토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급성장염은 감염된 음식을 먹고 난 뒤 고열과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여름에는 세균이 빨리 증식하기 때문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면 세균이 장벽을 손상시켜 설사 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같은 음식을 먹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장염에 걸리기 쉽다. 보통 감염된 음식을 섭취한 후 6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고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구토와 설사가 심할 경우 탈수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장티푸스균 등에 의한 세균성 장염은 초기엔 감기처럼 열이 나고 으슬으슬 춥다가 심하면 피가 섞인 변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에 반해 비세균성 장염은 묽은 설사가 주요 증상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름철에 걸리는 급성장염이 바로 이에 속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진찰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대변검사, 대변배양, 장내시경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급성장염은 장을 쉬게 하고 수분을 공급해 주면 서서히 호전된다. 따

듯한 보리차나 당분이 적은 이온음료를 조금씩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탈수되지 않도록 하고, 설사가 줄면 미음이나 쌀죽 등 기름기가 없는 담백한 음식부터 섭취한다. 설사가 심해 탈수증상이 생기거나 전해질이 소실되면 금식을 하고 수액 주사를 맞으며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열이 나고 한기가 들거나 변에서 고름이나 피가 섞이는 경우, 지사제를 사용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에게 치료 받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철 급성장염을 예방하려면 식품·환경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이다. 예컨대 30도 정도의 날씨에 음식을 4~5시간 방치하면 식중독을 일으킬 만큼 균이 생성되므로 주의한다.

※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 ① 되도록 조리 후 음식을 바로 먹는다.
- ② 가능한 충분히 오랜 시간 끓여서 먹는다.
- ③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이라도 맛과 냄새가 이상하면 먹지 않는다.
- ④ 조리하기 전에 꼭 손을 씻어 세균의 침범을 막는다.
- ⑤ 설사가 심하면 탈수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찬 음료와 기름진 음식, 장 운동을 촉진하는 과일 등의 섭취는 삼간다.



나는 2007년 3월 한국에 왔다. 그 당시에 북아메리카와 유럽은 여행을 많이 했지만, 아시아는 여행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에 한국을 통해 아시아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다. 2~3년 동안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다양한 아시아의 문화를 경험하리라 다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은 문화체험을 하기엔 정말 완벽한 곳이었다. 세계 1위의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마음껏 여행하기 좋은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시아를 여행하겠다는 나의 계획은 한국여자와 사랑에 빠지면서 바뀌었다. 여행보다 한 여자를 더 사랑하게 됐고 100일 후 우리는 결혼에 골인했다.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나는 지금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이 직업은 안정적인어서 내 아내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

비록 지금은 한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해 처가식구들 한국 친구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나를 표현하는 것이 다소 서툴지만, 한국사회는 이런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포용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임신을 해 딸아이를 출산 할 때 병원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또 현재 우리 가족은 영·유아 교육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무엇이나?”고 물을 때면 대답할 것들이 너무 많아 고민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만 이야기 하자면 ‘안전과 교통’이다.

인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엔 저녁 늦게 일을 했

고,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지나 직장에 까지 걸어가곤 했다. 주로 밤 10시 이후에 집을 나섰는데, 출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 없이 혼자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을 자주 보곤 했다.

이런 광경들은 미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흔한 풍경이었다. 그래서 나는 인천이 미국의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인천에서 인상 깊었던 또 다른 하나는 대중교통시스템이다. 나는 지난 3년간 운종계도 부평역 근처에 살았기에 차를 사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서울의 먼 곳까지 가야할 때도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았고, KTX를 이용하면 한국 전역을 5시간 이내에 갈 수 있다.

지금은 딸아이 때문에 작은 차를 하나 샀지만, 경제적이고 편리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주로 이용한다. 인천메트로의 노선 확대 계획은 경제적으로나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 할 거라 생각한다.

외국인으로 인천시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무실을 활발하게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외국인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사무실에 영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을 둔다면 외국인 거주자들의 커뮤니티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고, 실제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인 커뮤니티 공간을 실제로 부평구, 계양구, 연수구 같은 구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면 더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들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런 작은 노력이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삶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

장애인 복지발전 함께 할 동반자 모집

인천장애우대חק은 올해 장애인 복지 정책과 권익옹호를 위한 활동에 관심이 있고 장애복지발전과 장애인식개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뜻있는 사람들을 찾고있다.

- 입학대상 : 장애인복지 관련 공무원, 특수교사 및 사회복지사, 장애인시설종사자, 시민사회단체회원, 자원봉사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 각 대학교 사회복지 관련학과 학생
- 모집인원 : 80명
- 교육기간 : 8월 11일~12월 15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10시)
- 제출 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1통, 사진 2매, 입학지원서 1통(본 연구소 소정 양식)
- 문 의 : 889-8298, 881-8298

공무원 미술대전 작품 모집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예술적 재능발견과 정서함양을 통해 생동감있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21회 공무원미술대전 작품을 모집한다.

- 접수기간 : 7월 15일~23일
- 참가대상 : 공무원 연금받는 전·현직 공무원
- 모집부문 : 서예한글, 서예한문,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사진, 공예
- 문 의 : 02-502-4802

7월 시나리오 강좌 ‘작가의 탄생’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7월 정규강좌를 개최한다. 강좌주제는 시나리오 강좌 작가의 탄생이다.

- 교육기간 : 7월, 화·목 저녁 7시~10시
- 교육시간 : 총 21시간
- 참여인원 : 10명
- 대 상 단편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자하는 영화인
- 장편 시나리오 쓰기위한 기초를 다지고 싶은 예비영화 작가
- 영화계 입문을 준비하는 예비 영화 작가
- 수강료 : 4만원
- 문 의 : 872-2622



개관 2주년 기념 쿨 썸머 패키지

쉐라톤 인천 호텔은 7월 1일부터 개관 2주년을 기념하는 실속과 휴식을 겸비한 알찬 여름 패키지를 선보인다.

- 이번 여름 패키지는 지난 해 가족단위 패키지 고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썸머 스토리’ 패키지와 새로이 선보이는 ‘쿨 썸머’ 패키지, 여기에 오붓한 여름휴가를 원하는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 썸머’ 패키지까지 더해져 선택의 폭을 한층 넓혔다.
- 썸머 스토리 패키지 – 디럭스룸 1박, 2인 조식, 셰라톤 비치타월 구성(17만5천원)
- 쿨 썸머 패키지 – 디럭스룸 1박, 셰라톤 비치타월, ‘유후와 친구들의 아이월드’, ‘무무야 물놀이 가자’ 이용티켓 3장 포함(16만5천원~18만원)
- 로맨틱 썸머 패키지 – 디럭스룸 1박, 이탈리아 레스토랑 디너 포함(23만원부터)
- 문 의 : 835-1004



노동·생활법률 무료상담안내

인천지역 노동교육상담소에서는 인천지역의 근로자 및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노동법률 및 일반 민사, 형사, 가사 등의 생활법률 무료법률상담을 하고있다.

- 노동법관련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서류 작성 등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고소, 고발 구제신청 상담
 - 산업재해, 최저임금, 비정규직 등 관련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일반 민사/형사/가사 등 생활법률 관련 상담 및 무료 서류 작성 등
 - 부동산, 임대차, 채권, 채무, 이혼, 양육, 상속, 교통사고 등
- 시 간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문 의 : 515-4881

청소년 집단 심리검사 안내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 적성, 흥미, 능력, 가치관 등에 대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대인관계와 합리적인 진로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검사 실시일 : 1차-7월 9일(토) 2:00~3:00 집단검사로 진행 / 2차-7월 23일(토) 2:00~3:00 집단검사로 진행
- 해석 실시일 : 상담자 배정 후 개별 연락, 일정 논의 후 해석 상담 진행
- 장 소 :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4층 교육연수실
- 대 상 : 초등 5년~고3
- 내 용 :
 - 성격유형검사(MBTI, MMTIC) : 5천원
 - 학습검사(MLST학습전략검사) : 5천원
 - 진로검사 (진로발달, 진로탐색검사) : 5천원
- 문 의 : 721-2314

2011 작은음악여행! House Concert

미추홀문화회관은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2011작은음악여행! 하우스 콘서트’를 개최한다.

- 일 시 : 7월 8일 오후 7:00~8:00
- 공 연 : 천상을 울리는 목소리 - 팸페라
- 장 소 : (구)제물포 구락부
- 입장료 : 무료(초대권 소지자에 한하여 입장가능, 전화 및 방문 선접수 필)
- 문 의 : 765-0220, 0250



장영복 작가 초청 그림책 <여름휴가>

부평기적의도서관은 장영복 작가를 초청하여 그림책 <여름휴가>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 행사명 : 7월 책을 만난다. 친구 생각 + 내 생각
- 이 달의 책 : <여름휴가> 장영복 글, 이혜리 그림
- 일 시 : 7월 28일 목요일 늦은 6시(90분)
- 장 소 : 부평기적의도서관 공연장 어울림
- 참가 대상 : 남녀노소 누구나 / 신청순 200명
- 참가비 : 무료
- 문 의 : 505-0612~3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문화교육 ‘아시아문화 맛보기’

인천국제교류센터는 성공적인 아시아경기대회의 진행을 위해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아시아문화 맛보기’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문화 맛보기’ 프로그램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인천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www.icice.or.kr)에서 가능하다.

문의 : 451-1773~4

기 관 명	소재지 (홈 페이지)	연락처
7월 5일(화)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잃어버린 동아시아 신화를 찾아서 (정재서, 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7월 12일(화)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배낭하나 달랑메고 동남아여행 (박정은, 여행작가 ; 뿌리씨의 여행플래닛 '떠나볼까'운영자)
7월 19일(화)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아시아 문명의 뿌리, 우즈베키스탄 (이지은,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계양국제어학관 9월부터 운영

계양구에 유아, 유치, 초등부 전문영어교육기관이 선보인다. 계양국제어학관은 계양구가 설립하고,(재)인천시국제교류센터가 운영한다.



- 정규강좌모집 : 8월 1일(월)~8월 19일(금)
- 개강 : 8월 29일(월)
- 신청방법 : 계양국제어학관 홈페이지(www.gglc.or.kr) 접속 후 회원가입하여 강좌선택

아울러 계양국제어학관 내 ‘토크하우스’에서는 계양구주민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클럽을 무료로 운영하며,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테마강좌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학부모들을 위한 홈스쿨링 영어특강 등도 제공 할 예정이다.

○ 문의 : 451-1733, 4

7월 여름방학 플러스 행사

- 미추홀도서관에서는 다양한 강좌를 열고 있다.
<러시아를 건다>
- 일 시 : 5월 7일(토)~7월 23(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대 상 : 러시아 및 인문학에 관심 있는 인천시민
 - 접수마감 : 강의 시작 전일까지(회차별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전화, 방문
 - 문 의 : 440-6662

인천희망오케스트라 단원모집

-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천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동구청소년수련관, i-신포니에타가 공동주관하는 인천희망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단원을 모집한다.
- 일 시 : 5월~12월 매주 토. 14시~16시
 - 장 소 : 동구청소년수련관 5층 대강당
 - 대 상 : 인천지역 저소득 가정 청소년, 바이올린 2명, 비올라 2명
 - 특 전 : 악기초보자 모집, 1년간 악기 무상대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
 - 비 용 : 무료
 - 문 의 : 777-7942

해명단청박물관 개관 2주년 기념특별전

-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 정성길이 운영하는 해명단청박물관은 개관 2주년을 맞아 한국의 전통 꽃살창 단독 문양 단청을 전시하고 있다.
- 전시기간 : 7월 1일~9월 28일
 - 장 소 : 해명단청박물관 1층 전시실
 - 관람료 : 7세 이하, 60세 이상은 무료
8세~20세 : 1천5백원, 21세~59세 : 3천원
 - 문 의 : 868-5898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전

- 인천아트플랫폼은 제1회 인천·평화·미술_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전을 연다.
- 전시내용 : 평화, 서해 자연비경, 섬, 여행, 휴식·자연 화해의 역사화 심청 설화 등 스토리텔링
 - 장 소 :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의 근대문학관 건립지
 - 기 간 : 7월 27일~8월 28일
 - 문 의 : 760-1000

어린이 대상 방학특강

- 연수문화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강을 연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접수기간 : 6월 21일, 10시부터~(선착순마감)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http://yeonsu.or.kr>
☞ 연수문화포털사이트 <http://call.yeonsu.go.kr>
 - 인터넷접수 대행시간 : (월~금)10:00~17:00
(토)10:00~12:00
 - 문 의 : 821-6229
 - ※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강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교재·재료비 별도

태평양 전쟁피해자 보상촉구 모임

-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인천시지부는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동원 되었지만 별다른 장애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현재 모두 고령으로 정부로부터 연간 약 80만원 상당의 의료비만 지원받고 있다. 이에 지부는 강제동원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전쟁피해자들과 만나 정부에 보상을 촉구기로 했다.
- 만나는 날 : 7월 15일(금) 12시 30분
 - 장 소 : 부영식당(부평구 십정2동 407-31)
 - 참석대상 : 현재 의료비지원을 받고 있는 어르신
 - 문 의 : 525-4708, 010-7745-8181(마홍수 부지부장)

손안의 인천

인천광역시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천시미디어’를 서비스합니다.

‘인천시미디어’를 보려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1. 앱 스토어를 통해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2. QR코드를 스캔
3. smart.incheon.go.kr로 접속



헬로키티 플래닛 전시

- 인천관광공사는 헬로키티의 36년간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히스토리전을 연다.
- 전시명 : 헬로키티플래닛 HELLO KITTY PLANET
 - 전시기간 : 7월15일(금)~2012년 6월 30일(토)
 - 입장료 : 대, 소인 12,000원 (단, 24개월 미만 아동은 의료보험증 지참시 무료입장)
 - 관람시간 : 10:00~19:00(입장마감 18:00)
 - 전시장소 : 인천 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4-6 트라이블
 - 문 의 : 1688-9388

여성 알코올중독자 도와드립니다

- 보담 알코올치유센터는 알코올문제로 힘들어하는 여성분들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있다.
- 대 상 : 인천 거주 알코올·약물문제로 도움 받고 싶은 여성
 - 이용료 : 무료~실비(문의)
 - 과 정 : 전화 또는 내소 문의→예약접수→상담→평가→등록→사례관리
 - 시 간 : 월~금(오전10~오후5시)
 - 문 의 : 819-9478, 070-4127-0973

가정청소년문화의 집, 7월행사

- 가정청소년문화의 집은 7월 다양한 행사를 마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 문의 580-1190~3

행 사 명	접수처 및 기간	내 용
여름방학 체험학습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 7월 12일~29일 대 상 : 초등 3~6학년/40명 접수처 :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접수방법 : 선착순 방문 접수	체험일시 : 8월 8일(월)~8월 10일(수) 체험장소 : 한국민속촌 유스호스텔 (※경기도 용인) 내 용 : 민속촌 오리엔티어링, 수영, 옹기 체험, 놀이기구, 컬러 리더십, 염색 체험, 명랑운동회, 캠프파이어 등 참가비 : 6만원
-창의적 체험활동- 요리로 만나는 과학의 원리 요리책! 조리책!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 7월 18일~22일 대 상 : 관내 초등 2~6학년/20명 접수처 :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접수방법 : 방문, 전화 (※ 선착순 접수)	체험일시 : 7월 23일(토) 09:30~11:00 내 용 : 캐릭터 케이키 만들기 체험 참가비 : 무료
락킹 동아리 참가 청소년 모집 <※락킹 : 펑크댄스 분야의 합합과 결합된 합합댄스의 한 장르>	모집기간 : 수시 대 상 : 중 1학년~고 3학년 접수처 :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접수방법 : 방문, 전화, FAX 접수	교육일시 : 4월~12월 매주 금요일 18:00~20:00 활동장소 :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시민감사관 공모

- 우리시는 시민감사관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겸비한 시민감사관을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인천시 거주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건축, 토목, 도시계획, 조경, 환경, 위생, 보건, 소방, 전기, 기계 등 전문분야의 전공자 또는 대학, NGO 등에 근무하는 경우 우선 선발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지원서를 작성하여 인천시청 감사관실로 직접방문하거나 이메일·우편으로 7월 8일까지 신청 접수하면 된다.
- 문 의 : 440-3135

부평아트센터 7월 프로그램 일정

- 장 르 : 체험전 <모래야~놀자!!>
- 일 시 : 7월 16일(토)~8월 23일(화)
- 장 소 :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구름광장
- 티켓가격 : 1만 5천원
- 관람등급 : 24개월 이상
- 소요시간 : 70분(현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문 의 : 500-2000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장수천 생태체험

인천대공원 내 환경미래관에서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매주 토요일에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장수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생태체험으로 장수천의 수중생물 관찰, 수질테스트 등으로 진행해 자연과 친숙해지고 가족사랑을 느낄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가족단위 대상(최대 30명)으로 6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부터 16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 문의 : 440-5890

인천을 알아가는 재미가 가득!

문득 바다가 그리울 때, 가깝고도 아름다운 인천의 섬으로 향하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타고 영종대교를 지나 조금 달리면 삼목선착장이다. 여기서 10분 정도 뱃길을 타면 신도에 다른다. 신도와 시도 그리고 모도는 북도면에 나란히 떠 있는 형제같은 섬. 세 개의 섬이 연속으로 이어져 있어 하나의 섬처럼 구경할 수 있다.

다른 부분은 모두 다섯 곳입니다.



다른 그림 찾기
어디가 다를까?



6월호 '다른 그림 찾기'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열 분을 추첨해 알립니다.



박용규 서구 가좌동	임지연 연수구 송도동
김현미 남동구 논현동	김원기 남동구 만수4동
전정은 연수구 연수3동	천경화 남동구 구월1동
조현일 서울시 용산구	성낙숙 중구 인현동
정이철 중구 도원동	이경옥 남구 주안8동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인천 다른 그림 찾기에 응모하세요. 인천을 주제로 다른 그림 찾기 문제를 만들어 주는 것도 환영합니다.(단, 정답은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사진도 공모합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독자엽서 당첨자 ※ 독자엽서에 참여한 일곱 분을 선정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빈 제주도 서귀포시	박평수 계양구 서운동	이두휘 연수구 옥련동	공연숙 연수구 동춘동
윤기현 서구 신현동	이기순 연수구 신송도	이용길 부천시 원미구	



김치 찰칵



장원



인천대교를 낚는 이

영종도에서 오던 중, 어느 선착장에 인천대교를 낚는 이가 있어 담았습니다. 실루엣이 참으로 예뻐던 그곳에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인천의 볼거리가 더욱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_ 임충성 남동구 서창동



옛 정취를 느끼다

올 초에 인천 도호부청사에 갔었습니다. 바로 옆엔 인천향교가 있어서 둘러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어 요즘도 종종 가곤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
_ 권태희 남동구 구월1동



옹기들의 탑 놀이

벌써 201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가 부족했다면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사진 속 사이좋은 옹기처럼 서로 양보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_ 박종형 남동구 구월4동



베스트 드라이버

회사 체육대회에서 딸아이가 꼬마 자동차를 타고 레이싱하는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윤서가 스티커 15장을 받고 일등이 되었습니다. '윤서야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다오.'
_ 이기원 부천시 소사구



너! 삼질할 줄 알아?

사이좋은 네 살 동갑내기 친구들. 할아버지 논에서 멋지게 삼질하는 친구를 다른 한 친구가 부러워하니, 이를 알아채고 삼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네요.
_ 장현서 안산시 초지동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문의 ☎ 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와 시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영문사이트), (koreantweeters.com/smartincheon, 한글사이트)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과 퀴즈문 제 작성은 각 3장)을 드립니다.

해돋이공원에서 고래랑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송도 해돋이공원으로 갔습니다. 엄마인 저는 아이들 행기느라 조금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웃는 아이들을 보니 참 잘 왔다 싶었습니다.
_ 임명숙 연수구 동춘동

고향 인천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어

글 **이영준**
한국산업은행 인천지역 본부장



1977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을 떠난 후 바쁜 서울생활로 고향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 그러다 2006년 인천으로 근무지를 발령받아 시외버스 종합터미널에 내린 순간, 30년 세월 따라 변한 인천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했었다. 지금도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무작정 택시를 타고 석바위 근처에 있는 지점으로 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후 2008년 잠시 서울에서 근무하다 2009년 8월 본부장으로 발령받아 다시 인천에 온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다.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공항, 한창 건설하고 있는 송도 컨테이너신항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자유구역 등 훌륭한 인프라를 갖췄다. 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어두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30년 전 모습과 크게 차이가 없는 동인천, 제물포, 화수·만석부두 등의 구도심, 저녁이면 을씨년스러워지는 남동공단, 주안공단 등 각종 산업단지, 점차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인천항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극명한 명암교차에도 불구하고 30년 전과 비교한 현재의 인천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발전했고, 향후에 한반도 전체를 바꾸어 놓을 중추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천에서 근무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 고향 인천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남은 시간 중점을 뒀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반추해 본다. 먼저 지역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수립, 추진코자 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에서 산업은행이 독보적인 역할을 해 온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용해 송의운동장 재개발, 스마트밸리 조성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공항철도 및 고속도로 등 SOC 건설사업, 송도 신항만 건설, 강화 일반산업단지 조성, 남동공단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인천경제를 기업규모 차원에서 보면 중소기업이 90% 이상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알토란 같은 기업은 물론이고 성장가능성을 지닌 숨은 진주 같은 비전기업들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기업을 발굴해 인천경제 나아가 한국경제를 선도할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의무감을 갖는다.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비전기업 1000개 육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산업은행 자체 프로그램인 ‘KDB Global Star’ 기업 발굴에도 주력하고 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면 책상 앞에 앉아 묵상에 잠긴다. 오늘은 어떤 회사를 방문할 것인가, CEO에게 어떤 말씀을 올릴 것인가, 또 그러한 나의 언행이 회사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등등.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3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찾은 고향 인천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게 했으면 한다. 나아가 현재 인천의 캐치프레이즈인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들만의 시크릿 가든

여름이 되면 골목마다 멋진 정원이 꾸며집니다. 정원사는 대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들만의 ‘시크릿 가든’이 만들어 집니다. 그들 손에 들어가면 고물도 훌륭한 텃밭이 됩니다. 함지박은 기본이고 옥조, 냉장고, 페인트통, 저수조통, 심지어 변기 화분까지 등장했습니다. 심는 식물도 다양합니다. 관상용 화초를 비롯해 상추, 호박, 깻잎은 물론 벼까지 심습니다. 우리는 농경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농경 DNA가 흐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글·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